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미취업 기혼여성의 진로장벽과
진로포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송 지 연

2012년 2월



미취업 기혼여성의 진로장벽과 진로포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박 태 수

송 지 연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2월

송지연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년 2월

<국문초록>

미취업 기혼여성의 진로장벽과 진로포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송지연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박태수

본 연구는 미취업 기혼여성의 개인적 특성별 진로장벽, 진로포부, 진로결정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고, 미취업 기혼여성의 진로장벽과 진로포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 미취업 기혼여성의 개인적 특성(연령, 경력단절기간, 학력, 가계 월소득, 자녀 수, 취업에 대한 배우자 반응)별 진로장벽, 진로포부, 진로결정수준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 미취업 기혼여성의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수준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 미취업 기혼여성의 진로포부와 진로결정수준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4 : 미취업 기혼여성의 진로장벽과 진로포부는 진로결정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10개 직업훈련기관 및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의 미취업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진로장벽, 진로포부 그리고 진로결정수

1) 본 논문은 2012년 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준 검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for Window 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산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취업 기혼여성의 개인적 특성(연령, 경력단절기간, 학력, 가계 월소득, 자녀수, 취업에 대한 배우자 반응)별 진로장벽, 진로포부, 진로결정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미취업 기혼여성의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수준은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진로장벽 7개의 하위 요인은 진로결정수준의 하위 요인인 ‘결정된 수준’에 모두 유의한 수준에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셋째, 미취업 기혼여성의 진로포부와 진로결정수준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진로포부 3개의 하위 요인은 진로결정수준의 하위 요인인 ‘결정된 수준’에 모두 유의한 수준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넷째, 미취업 기혼여성의 진로장벽과 진로포부는 진로결정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진로장벽의 ‘의사결정의 어려움’ 요인과 진로포부의 ‘노력포부’ 요인이 진로결정수준 모든 요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미취업 기혼여성의 개인적 특성별 진로장벽, 진로포부, 진로결정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미취업 기혼여성의 진로장벽과 진로포부는 진로결정수준에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취업 기혼여성들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진로장벽을 예방하고 진로포부를 높일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취업 상담 현장과 가정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미취업 기혼여성들의 취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가정양립을 위한 지원이 바탕이 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것 역시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변화된 사회의 흐름을 맞춰갈 수 있는 여성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는 미취업 기혼여성의 진로장벽과 진로포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미취업 기혼여성의 취업 상담과정에서 취업을 원하는 미취업 기혼여성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여성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해 추진해야 하는 정책의 기초자료 제공에 그 의의가 있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및 가설	4
II. 이론적 배경	6
1. 미취업 기혼여성의 특성 및 제주지역 기혼여성 취업실태	6
2. 진로장벽 개념과 기혼여성이 지각하는 진로장벽	9
3. 진로포부 개념과 Gottfredson의 진로포부이론	12
4. 진로결정수준 개념 및 기혼여성들의 진로 결정요인	15
5. 진로장벽, 진로포부,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	17
III. 연구방법 및 절차	20
1. 연구대상	20
2. 연구도구	21
3. 연구절차	23
4. 자료처리	24
IV. 연구결과 및 해석	25
V. 요약, 결론 및 제언	52
참고문헌	61
Abstract	68
부 록	71

표 목 차

<표 III-1>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연구대상	22
<표 III-2> 진로장벽 척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계수	24
<표 III-3> 진로포부 척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계수	24
<표 III-4> 진로결정수준 척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계수	25
<표 IV-1> 미취업기혼여성의 연령별 진로장벽 차이 검증	29
<표 IV-2> 미취업기혼여성의 연령별 진로포부 차이 검증	30
<표 IV-3> 미취업기혼여성의 연령별 진로결정수준 차이 검증	31
<표 IV-4> 미취업기혼여성의 경력단절기간별 진로장벽 차이 검증	33
<표 IV-5> 미취업기혼여성의 경력단절기간별 진로포부 차이 검증	34
<표 IV-6> 미취업기혼여성의 경력단절기간별 진로결정수준 차이 검증	36
<표 IV-7> 미취업기혼여성의 학력별 진로장벽 차이 검증	37
<표 IV-8> 미취업기혼여성의 학력별 진로포부 차이 검증	38
<표 IV-9> 미취업기혼여성의 학력별 진로결정수준 차이 검증	40
<표 IV-10> 미취업기혼여성의 가계 월소득별 진로장벽 차이 검증	41
<표 IV-11> 미취업기혼여성의 가계 월소득별 진로포부 차이 검증	42
<표 IV-12> 미취업기혼여성의 가계 월소득별 진로결정수준 차이 검증	43
<표 IV-13> 미취업기혼여성의 자녀수별 진로장벽 차이 검증	45
<표 IV-14> 미취업기혼여성의 자녀수별 진로포부 차이 검증	46
<표 IV-15> 미취업기혼여성의 자녀수별 진로결정수준 차이 검증	47
<표 IV-16> 미취업기혼여성의 배우자반응별 진로장벽 차이 검증	48
<표 IV-17> 미취업기혼여성의 배우자반응별 진로포부 차이 검증	49
<표 IV-18> 미취업기혼여성의 배우자반응별 진로결정수준 차이 검증	50
<표 IV-19> 미취업기혼여성의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52
<표 IV-20> 미취업기혼여성의 진로포부와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53
<표 IV-21> 미취업기혼여성의 진로장벽 하위요인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56
<표 IV-22> 미취업기혼여성의 진로포부 하위요인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58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사회는 2)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2009년 기준 합계출산율 1.22명)과 3)고령화 사회(2050년 고령인구 비율 38.2%예상)로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해 노동력 부족현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여성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주요선진국들이 국민소득 1만불에서 2만불로 가는 시기에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되었고,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여성인력개발 및 활용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기혼여성을 인적자원의 블루오션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유는 우선 과거와 달리 여성의 사회 참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고학력화에 따른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욕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정영태, 성운애, 강수영, 2009).

그러나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활동 참가 등의 면에서 볼 때 한국은 아직도 세계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유엔이 인간개발보고서(2009)를 통해 매년 발표하는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에서 한국은 109개국 중 61위를 기록한 것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해(2010년) 49.4%로 남성 73%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 일자리 갖기를 단념한 여성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능력이 많이 개발됐지만 그에 걸맞는 사회·경제적 인식 변화와 제도가 마련되지 못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여성은 전통적인 남성지배의 가부장제적인 사회 및

2) 유엔인구기금(2009), “세계 인구현황 보고서 한국어판”, 인구보건복지협회, p.245.

3) 금융VIP시리즈(2011), “고령화 진전에 따른 정책과제 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p.5.

조직문화로 직장에 진출하면서 가사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다. 이러한 과중한 부담은 남성과 동등한 교육을 받고 충분한 업무 수행 능력이 있음에도 중도 포기하는 원인으로 가장 먼저 꼽히고 있다. 여성들의 중도퇴직은 직장 내 여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 수준을 낮추고, 승진 등에서 불리하게 작동하고, 남성문화인 비공식적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정보배제, 유대관계에서의 소외 등 조직문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는 현실이다(정영태 외, 2009).

또한 기혼여성이 출산 및 육아부담으로 진로단절을 겪게 되면 일시적인 단절로 비취질 수 있으나 생애주기에 걸쳐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 단절을 의미함으로 악순환이 연결고리가 되어 기혼여성을 노동시장에서의 상대적으로 저평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현대 직업 시장의 가속화되는 변화는 여성이 진로단절로 인한 직업 능력의 상실을 노동시장에서 원하는 상태로 환원하는 데에 많은 노력이 들 뿐만 아니라 직업복귀 시에 기혼여성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다양한 진로장벽을 만나게 된다.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 기혼 여성이 취업과정에서의 불리한 고용조건, 연령의 제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보육지원 시스템의 부족 등과 같은 외부에서 오는 장벽과 경력단절 혹은 실업기간으로 인한 자신감 부족, 낮은 자존감, 직업정보 부족, 취업에 대한 두려움 등과 같은 내부적인 심리적 갈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주저하게 되며 직업포부를 조절하게 된다(최영숙, 2004).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관심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는데 그 중 진로선택과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 중 하나가 지각된 진로장벽이며, 진로장벽은 개인이 속한 사회, 문화적 맥락이나 환경적인 요인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변인이다(임은경, 1998). 진로선택의 과정에서 개인이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할 수록 또 다른 중요한 진로관련 변인이자 미래의 목표 직업을 선택하는 잠정적인 기준이 되는 진로포부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진로장벽이 진로포부를 설명하는 변인이라는 것과 이러한 진로장벽은 여성이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남성보다 여성의 진로포부를 더 심각하게 방해한다는 것은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졌다(손은령, 손진희, 2005; Luzzo & Jenkins, 1996; O'Brien &

Fassinger, 1993).

또한, Gottfredson(1981)은 여성의 직업포부가 직업적 성 고정 관념에 매우 제한적 작용을 한다는 관점을 주장해왔다. 나아가 개인적 직업선호와 고용현실 간에 타협이 이루어져야 할 때, 여성들은 기꺼이 일의 분야인 자신의 직업흥미를 희생하고, 최소한 자신들이 선택과 성 적합성 차원을 타협하려고 한다고 제안한다. 이와 같이 진로단절된 여성이 취업을 원할 때에 진로장벽들을 직면하게 되면 자신의 직업포부를 축소하게 되며, 직업적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여성도 진로장벽으로 인하여 취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진로타협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직업포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여성이 있는 반면 두터운 진로장벽을 극복하고 진로를 개척한 많은 여성들이 있다.

따라서 기혼여성의 취업을 위해서는 미취업 기혼여성의 직업진로를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장애요인 즉, 진로장벽들을 얼마나 민감하게 지각하고 있으며, 진로포부 수준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러한 진로결정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들에 대해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진로결정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대학생, 특히 여대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손은령, 2001; 정홍원, 2002; 임선희, 전해영, 2004; 유하림, 2007), 기혼여성들의 진로결정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들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여성들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진로장벽과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실행하기 위해 중요한 선택이라 할 수 있는 진로포부를 분석하는 것은 기혼여성의 직업진로 방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미취업 기혼여성의 직업진로교육 및 상담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기회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취업 기혼여성이 취업을 하고자 할 때 직면하게 되는 개인적 특성별 진로장벽, 진로포부, 진로결정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고, 미취업 기혼여성의 진로장벽과 진로포부가 진로결정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의 연구문제 및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 미취업 기혼여성의 개인적 특성(연령, 경력단절기간, 학력, 가계 월소득, 자녀 수, 취업에 대한 배우자 반응)별 진로장벽, 진로포부, 진로결정수준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 미취업 기혼여성의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수준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 미취업 기혼여성의 진로포부와 진로결정수준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4 : 미취업 기혼여성의 진로장벽과 진로포부는 진로결정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위와 같은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설정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 미취업 기혼여성의 개인적 특성(연령, 경력단절기간, 학력, 가계 월소득, 자녀 수, 취업에 대한 배우자 반응)별 진로장벽, 진로포부, 진로결정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1. 미취업 기혼여성의 연령별 진로장벽, 진로포부, 진로결정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미취업 기혼여성의 경력단절기간별 진로장벽, 진로포부, 진로결정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3. 미취업 기혼여성의 학력별 진로장벽, 진로포부, 진로결정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4. 미취업 기혼여성의 가계 월소득별 진로장벽, 진로포부, 진로결정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5. 미취업 기혼여성의 자녀수별 진로장벽, 진로포부, 진로결정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6. 미취업 기혼여성의 취업에 대한 배우자 반응별 진로장벽, 진로포부, 진로결정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 미취업 기혼여성의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수준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 미취업 기혼여성의 진로포부와 진로결정수준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 미취업 기혼여성의 진로장벽과 진로포부는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미취업 기혼여성의 개인적 특성별 진로장벽, 진로포부, 진로결정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고, 미취업 기혼여성의 진로장벽과 진로포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에 대한 이론적 기초로 미취업 기혼여성의 특성 및 제주지역 기혼여성 취업실태, 진로장벽의 개념 및 기혼여성이 지각하는 진로장벽, 진로포부의 개념 및 Gottfredson의 진로포부이론, 진로결정수준 개념 및 기혼여성들의 진로 결정요인,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와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미취업 기혼여성의 특성 및 제주지역 기혼여성 취업실태

1) 미취업 기혼여성의 특성

경력단절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제고를 위한 실태조사(2008)에 따르면 미취업 기혼여성의 85.9%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나영선, 이수경(2000)은 집중적인 육아가 종료되는 35세 이후의 시기에 기혼여성의 취업요구가 증대되고 취업 혹은 직업전환을 위한 학습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갖게 된다고 보았다. 특히 기혼여성은 정보 부족과 사회적 지원체제 미비로 인하여 취업을 위한 직업진로 탐색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나가는 암중모색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윤혜경, 2007). 기혼여성의 직업진로 탐색의 경험을 분석한 윤혜경(2007)은 기혼여성의 직업진로탐색 경험을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주목할 점은 대다수 여성들이 1단계와 2단계에서 진로탐색의 혼란을 겪다가 3단계인 직업진로 결정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구직을 포기하게 되는 사례들이 많다는 것이다. 육은아(2005)의 연구에 따르면 기혼여성들은 진로와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불합리적 신념(과다 자기 기대, 인정욕구, 완벽성, 선부른 기대, 자기변경, 문제회피, 과잉

불안 및 좌절, 지나친 의존, 지나친 타인염려)을 지각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미취업 기혼여성의 직업진로를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장애요인, 즉 진로와 관련된 장벽들을 얼마나 민감하게 지각하고 있으며, 어떤 유형의 진로장벽을 보다 심각하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특히 최정원(2005), 최영숙(2004)에 연구보고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경우 다양한 생애역할로 자신의 진로를 일관되게 유지 관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포부는 자신의 진로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미취업 기혼여성’은 취업의사가 있으나, 현재 취업상태가 아닌 기혼여성을 말한다. 유사한 용어로 ‘경력단절 기혼여성’은 전직경험이 있는 여성을 일컫는 말이며, ‘실업 기혼여성’은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김동숙, 2011에서 재인용). 즉 ‘미취업 기혼여성’은 전직경험의 유무와 상관이 없으며, 또한 현재 직업교육참여, 가사 및 육아 등으로 당장의 취업이 힘들더라도 이후 취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모두 일컫는 말이다.

2) 제주지역 기혼여성 취업실태

KOISIS국가통계포털 여성경제활동참가율(2000~2009)에서 제주지역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전국 평균이 2000년 중반에 이르러 50%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 제주지역은 이미 60%를 넘고 있으며 2005년과 2006년 65.3%와 65.9%의 높은 참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제주지역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보고서(2005)에 따르면 현재 제주지역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지역여성의 고학력화 현상에 따라 참가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혼 55.7%, 미혼 41.8%로 기혼여성이 미혼여성에 비하여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기혼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의 충족률이 낮아서 고학력 기혼여성의 실업률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한다.

즉 제주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과 달리 여성인력을 개발하는 현장은 돌봄과 비숙련·단순 업무에 치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연보(2008)에 따르면, 제주지역 여성경제활동 참가에 따른 직종을 분야별로 살펴본 결과 제주

지역 여성이 대표자인 사업체는 주로 숙박업이 15.3%, 도매 및 소매업이 1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분야가 3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한다. 이는 제주지역이 농림어업 부문이 많고 관광지특성상 소규모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위한 전문화와 정보화 교육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시스템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영태 외(2009)의 연구에 따르면, 2008년은 전국적으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0.3% 하락하였으나, 제주지역은 하락폭이 다소 큰 3%로 나타남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매우 높게 하락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정으로 전국적인 현황과 비교하여 통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경제여건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을 각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한다.

즉 제주지역의 여성 취업자수를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25~29세 여성 취업자수는 36천명에서 27천명으로 현격히 급감하고 있으며, 30~34세 여성 취업자는 2000년 36천명에서 2009년 33천명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다. 35~39세 여성 취업자 현황은 2000년대 들어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40~44세 여성의 경우 증가와 감소가 번갈아 진행되고 있으며 2003년 이후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5~49세 여성 취업은 2000년 24천명에서 2009년 36천명으로 이 연령대의 취업증가가 가장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다. 50~54세의 경우 역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 이후 30천명을 넘어서며 안정적인 취업현황을 보이고 있다(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4~2008」).

이에 제주에 있어 연령대별 증감의 편차의 원인으로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여성의 경우 결혼 및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취업자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으며, 40대 이후는 여성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전형적인 M커브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 40대 이후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상담프로그램 및 일자리 정책이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한다(정영태 외, 2009)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 고학력 여성 유희인력 활용방안에 대한 조사연구(2008)에 따르면, 제주지역 기혼 여성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수는 40대 이상 보다 20~30대에서 많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여성 취업 장애 요인에 관한 견해에서는 학력에 상관없이 여성은 육아와 사회적 편견 때문에 취업에 장애를 받고 있다고 보고한다.

한편, 제주지역 여성의 취업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에 따라 비교적 큰 차이가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돌봄과 결혼 등 가족관계 구성과 관계없이 취업에 대한 욕구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20대~30대 이상 고학력 기혼여성들에게 자녀 돌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이 마련된다면 지속적인 여성의 노동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보고서, 2005에서 재인용).

이처럼 제주지역 기혼여성의 취업이나 창업 등 사회진출의 필요성에 따라 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진로장벽과 취업욕구에 대한 진로포부가 진로결정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기혼여성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맞춤형 진로프로그램 및 미취업 기혼여성의 취업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취업지원 정책과 제주지역 여성의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진로장벽 개념 및 기혼여성이 지각하는 진로장벽

1) 진로장벽의 개념

진로장벽(career barriers)이란 ‘취업, 진학, 승진, 직업의 지속, 가사와 직장 생활의 병행, 직무 행동 등 진로와 관련된 여러 경험들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진로선택, 목표, 포부, 동기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역할 행동을 방해할 것으로 지각되는 여러 부정적 사건이나 사태’를 일컫는 말이다(손은령, 2001a).

또한 Swanson & Daniels(1995)는 ‘직업이나 진로계획상의 진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진로장벽을 정의하고, 진로장벽에는 심리적인 특성을 가진 내적장벽과 환경에서 주어지는 외적 장벽이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진로장벽은 진로와 관련

된 심리적인 측면인 개인 내적 장벽과 환경적인 측면의 개인 외적 장벽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진로가 단절되고 좌절되게 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개념으로 정착되고 있다(유미정, 2008에서 재인용).

그러나 진로장벽을 진로목표를 방해하는 내·외적 진로장벽으로 구분하는 것은 개념적인 단순함으로 인해 편리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개인이 지각하는 진로장벽 전체를 포괄하는 기준으로는 부족하다는 견해가 있다(Swanson & Woitke, 1997). 또한 Swanson과 Woitke(1997)는 특정한 장벽이 내적 혹은 외적 진로장벽으로 구분되는 것은 연구자의 해석의 문제이지, 객관적으로 어떤 장벽을 내·외적 진로장벽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다중역할로 인한 갈등은 특정 문화에서 여성에게 직장인, 주부, 아동 양육의 역할을 모두 기대한다는 면에서 외적 진로장벽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기대를 장벽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결국 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내적 진로장벽 요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진로장벽에 대한 이분법적 구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연구자들은 지각된 진로장벽의 하위 요인들을 보다 세분화해서 구분하기 시작하였다(김은영, 2001; 손은령, 김계현, 2002; Swanson et al., 1996). 진로장벽 검사의 하위 요인들은 자신의 흥미나 자신감을 포함하는 개인내적 요인, 사회적 관계, 차별과 같은 구조적 문제, 경제적 문제를 포함한 다른 요인들을 포함한다. 진로장벽 검사의 이러한 포괄적인 구성은 진로계획이나 실행단계에서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포괄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흥미, 자신감과 같은 성격적 특성과 진로정보의 부족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를 하나의 개념 안에 포함시켜 진로장벽이라는 개념을 모호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위의 개념들을 종합하여 보면 진로장벽이란 일반적으로 진로와 관련된 계획이나 환경 또는 미래 목표의 설정을 가로막는 여러 방해물들, 곧 넓은 의미의 총체적인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기혼여성이 지각하는 진로장벽

손은령(2001)은 Swanson과 Daniels가 개발한 진로장벽검사(CBI)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진로장벽 항목들을 추출하여 설문을 통해 진로장벽 항목을 만들고 문항을 개발하여, 진로장벽 검사를 제작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사회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진로장벽 항목들이 다수 나타났고, 검사를 실시하고 요인 분석한 결과 7가지의 요인(차별, 직장생활에 필요한 개인특성의 부족, 다중역할로 인한 갈등, 미결정 및 직업준비부족, 노동시장 및 관습의 제약, 기대보다 낮은 직업전망, 여성 취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추출하였다. 최영숙(2004)은 진로단절여성의 연령, 학력, 단절기간, 전 직종 근무기간, 전 직종에 따른 지각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령에 따른 진로장벽 지각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진로장벽 하위 요인(자녀양육환경, 차별,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의사결정의 어려움, 배우자 고려, 준비/기술부족, 고용계약) 중에서 ‘의사결정의 어려움’, ‘준비 및 기술부족’, ‘고용의 제약’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의사결정의 어려움’과, ‘고용의 제약’은 30대에서 ‘준비 및 기술부족’이 40대에서 가장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진로장벽 지각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진로장벽의 하위 요인 중에서 ‘준비 및 기술부족’에서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고졸학력에서 ‘준비 및 기술부족’ 요인을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전문대졸, 대졸 이상 순으로 보고되었다. 즉 학력이 낮을수록 ‘준비 및 기술부족’ 요인에서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절기간에 따른 진로장벽 지각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에서 ‘자녀양육환경’, ‘배우자에 대한 고려’, ‘준비/기술부족’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단절기간 1년 이하 집단보다 단절기간 6년 이상의 집단에서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절기간이 길수록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정원(2005)은 경력단절여성의 연령, 학력, 가계소득, 경력단절기간에 따른 진로장벽 지각의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진로장벽 전체 점수에서는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로장벽 하위 요인(차별, 특성부족, 다중역할 갈등, 직업준비부족, 노동시장과 관습의 제약, 기대보다 낮은 직업전망,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념)중에서 ‘다중역할 갈등’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30대가 20대와 40대 보다 ‘다중역할 갈등’을 더욱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학력에 따른 기혼여성의 진로장벽 지각에 대한 차

이는 하위 요인 중에서 ‘차별’과 ‘낮은 직업전망’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전문대졸이 대졸보다 낮은 직업전망 요인에 대해 높은 지각을 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가계소득에 따른 진로장벽 지각에 대한 차이 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력단절 기간에 따른 진로장벽 지각 차이 분석에서는 경력단절기간이 짧을수록 진로장벽을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분(2009)은 기혼여성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의 하위 요인 중에서 ‘고용의 제약’, ‘차별’, ‘자녀양육환경’ 요인 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혼여성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은 나이, 가계 월 소득, 막내자녀의 나이, 취업에 대한 배우자의 반응, 직업교육 수강정도, 직업진로상담 경험의 유무 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수에 따른 진로장벽 지각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기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진로장벽의 지각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기혼여성의 연령에 따른 진로장벽의 지각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의 변인에 대해서는 연구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어 이에 다양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기혼여성이 지각하는 다양한 상황들의 진로장벽을 고려하여 진로결정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3. 진로포부 개념 및 Gottfredson의 진로포부이론

1) 진로포부의 개념

진로포부란 개인이 선택한 진로 안에서 성공과 성취를 얼마나 동경하는가를 의미한다(O'Brien, Gray, Touradi & Eigenbrode, 1996). 선행연구에 따르면 진로포부는 시간이 지나도 어느 정도 연속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양난미, 2008). 또한 진로포부는 개인이 자신의 진로선택을 명확하게 하는데 필요하며 앞으로의 진로발달 과정을 예측하고 미래의 직업적 성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

려져 있다(최용용 외, 2009). 그러나 이상적인 진로가 현실의 진로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로포부와 현실 사이에서 실현가능한 진로대안을 선택하는 타협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미나, 2011).

이러한 관점은 진로포부를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변인으로만 정의하고 측정하고자 하는 방법과는 달리 진로선택에서의 사회 맥락적 변인을 고려하는 최근의 사회인지 진로이론의 관점과 일치한다. 즉, 진로장벽을 많이 지각할수록 현실과 타협하는 과정에서 진로포부를 낮추게 되며, 자신감을 낮추고 진로발달을 방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양희, 유성경, 2009).

최근 들어 진로장벽의 수준에 따라 진로포부가 영향을 받고(양현정, 이기학, 2007), 진로포부에 따라 희망직업 또는 진로의 폭을 줄여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변인들이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밝힌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김양희, 유성경, 2009; 유나현, 이기학,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진로포부는 직업의 명성에 상관없이 한 직업 내에서 개인이 성취하고 더 높은 위치에 오르도록 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현재 진로상황을 인식하고 앞으로 자신에게 적절하다고 생각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교육수준이나 직업지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Gottfredson의 진로포부이론

진로포부의 발달은 Gottfredson(1981)이 제시한 이론의 주요주제이며, 이 이론에서 Super(1996)와 마찬가지로 발달적 단계를 다루면서 개인이 어떻게 특정 직업에 매력을 느끼게 되는가를 기술했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미지에 알맞은 직업을 원하기 때문에 직업발달에서 자기개념은 진로선택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역설하였으며, 자기개념이나 흥미 같은 개인의 내적 요인에만 초점을 두었던 이전의 발달이론과는 달리, 성역할이나 사회적 명성과 같은 사회적 요인과 추론능력, 언어능력과 같은 인지적 요인을 통합시켜 진로포부의 발달에 대해 체계적인 설명을 시도하였다.

또한 자아개념과 직업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발달하여 진로포부를 형성하게

되는가에 초점을 두고, 진로포부와 연관된 여러 가지 요소들과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즉 진로포부는 자아개념(성, 사회계층, 지능, 흥미, 가치), 직업에 대한 이미지(성, 명예, 분야), 직업에의 접근가능성, 선호성 등과 같은 여러 요소들에 의해 형성된다. 각 개인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직업 대안들에 대한 그들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직업과 개인의 양립가능성에 대한 자신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위의 여러 요소들에 근거하여 자신의 직업포부를 선택하게 되고 가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Gottfredson의 이론은 자기개념의 발달에 따라 직업포부를 제한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설명한 이론으로 여성 진로발달에 중요한 개념으로서 여성들이 자신의 포부를 왜 축소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여성의 진로에 대한 연구는 진로지향 대 가족지향, 전통적 대 비전통적 진로, 선택한 진로의 지위 수준(Fassinger, 1990; O'Brien & Fassinger, 1993)에 대하여 주로 연구되어져 왔으나 이런 구분은 이제 너무 모호하고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많은 여성들이 가정과 진로를 같이 계획하고 있고 전통적·비전통적 분야에 고용되어서 리더쉽 위치, 승진에 대한 포부를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택한 진로 안에서 여성들의 포부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여성의 진로발달과 직업적 성공을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제안되고 있다(O'Brien, Gray, Touradi & Eigenbrode, 199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들의 진로선택이나 진로결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미래의 계획, 흥미, 가치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할 수 있으며, 한 발 더 나아가 진로포부를 조사하면, 선택한 진로 안에서 여성의 진로발달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로 상담가는 내담자가 진로선택을 명료하게 할 수 있도록 선택한 분야에서의 성취 계획 또한 도울 수 있게 될 것이다.

4. 진로결정수준 개념 및 기혼여성들의 진로 결정요인

1) 진로결정수준의 개념

진로결정에 대한 연구는 진로를 결정한 사람과 결정하지 않은 사람간의 차이를 밝히고, 미결정의 종류를 구분하며,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개인의 현재 결정수준을 측정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진로결정수준에 관한 개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이 용어가 사용되는 맥락에서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 진로미결정, 진로결정, 결단성 부족 등의 개념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윤선미, 2001).

진로미결정자를 바라보는 가장 일반적인 시각인 발달적 미결정자는 자기 자신, 직업 세계 및 의사결정과정에서 추가적인 정보 및 지식의 부족으로 아직 결정을 못했거나 선택에 대해 몰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반면, 결단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만성적인 미결정자로 간주된다. 만성적 미결정자들은 진로에 관련된 결정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내려야 하는 여러 가지 결정들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특성을 보인다. 즉,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성이기 보다는 성격적으로 결단성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진로결정만이 아니라 다른 결정 상황에서도 결정을 회피하려는 개인 특성을 나타낸다(Osipow, 1980).

또한 Holland(1997)의 연구에 의하면 미결정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과반수가 “나는 지금 당장 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했다. 반면 진로에 대해서 결단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발달단계를 나타내 보이는 것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하느라 진로선택을 연기하는 것도 아니다. 대신 이들은 자신의 진로에 관련된 결정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결정들에 대해서 쉽사리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Crites(1981)는 진로미결정의 원인으로 개인의 성, 사회 문화적 배경 등의 요소보다는 정보의 부족, 진로선택과 결정에 대한 학습 및 체험의 부족 등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보충 할 것을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진로결정은 첫째, 진로선택에 대한 명확한 결정을 위해서 출발한 개념으로 한 사건의 분석이기보다는 개인차를 지닌 과정의 연속이며, 한 개인의

일생에 걸쳐 이루어진다. 둘째, 진로결정수준이 높다는 것은 진로에 관한 정보를 탐색하고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 직업선택의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진로결정과정은 개인마다 복잡하고 독특하며 그 과정은 개인의 인지적, 환경적 요인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김동숙,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수준이란 진로 미결정과 진로결정을 양 극단으로 하는 연속척상의 어느 한 지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기혼여성들의 진로 결정요인

남순환(2002)은 기혼여성의 취업 여부는 주부가 취업에 대해 갖는 긍정적·부정적 태도에 의해 좌우되기도 하지만 가족을 포함한 중요한 타인인 친가와 시가 친척의 태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즉, 전업주부로 있기 원하지만 주변인들이 반대를 할 경우 여성의 심리적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역할 갈등이 취업에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한다.

이처럼 진로결정수준이란 단순히 개인의 진로에 대해 결정된 수준만을 나타내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와 동시에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겪는 개인의 특성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이성식, 2007) 특히 문화적으로 상호의존관계를 강조하는 우리나라에서 기혼여성들의 진로결정은 개인의 내적요인뿐만 아니라 외적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즉, 기혼여성이 진로발달 과정에서 취업과 관련된 장애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스스로가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지각하면 더 이상 장애요인으로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김동숙, 2011). 이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에 독립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수준의 영향 관계에서 진로포부를 조절할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진로결정과 관련된 국내의 최근 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결정수준에 관한 연구(정숙영, 2002; 김선중, 2005; 박미경, 2008; 윤성원, 2008; 고태용, 2008; 황선영, 2010)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선행연구에서 진로결정수준과 관련된 변인들은 학년, 전공, 자아개념, 성숙, 동기, 흥미, 대학수준, 의존성, 사회-경제적 수준, 중요한 타인의 영향, 성

적, 부모의 기대수준, 의존성, 애착, 회피행동, 의사결정양식, 통제소재, 사회적 적응, 정보부족 등 다양한 심리적 변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문 편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취업 기혼여성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적 요인인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 희망직업 또는 진로의 폭을 조절하는 진로포부와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5. 진로장벽, 진로포부,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에 대한 유의한 결과를 많이 보고하고 있다(김선중, 2005; 김영경, 2008; 박용두, 이기학, 2007; 유나현, 이기학, 2009; 이상희, 2007; 정민, 노안영, 2008; 조현주, 2006; 천석준, 이기학, 2008; London, 1997).

더불어 최근 연구들은 지각된 진로장벽의 정도가 진로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둘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여러 요인들에 의해 진로장벽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손은령, 2000; Sawason & Tokar, 1991).

진로장벽은 진로결정 과정에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Lent et al., 2001), 진로장벽에 대처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한다(London, 1997). 그런데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수준 간에 흥미롭게도 유의미하지 않거나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낸 연구들 또한 존재한다. 이와 같이 불일치하는 결과들에 따라 연구자들은 진로결정과 진로장벽의 관계가 단순 선형이 아니라 다른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관계임을 가정하고 확인해 왔다(박용두, 이기학, 2007; 이상희, 2007; 정민, 노안영, 2008).

지각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진로결정수준과 지각된 진로장벽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부적상관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박미경, 김영숙, 이현림, 2008; 박용두, 이기학, 2007; 손은령,

2001b; 이성식, 2007; 정미예, 이현림, 2007).

또한 진로결정집단, 중간집단, 진로미결정 집단으로 나누어 진로장벽이 인식정도를 살펴본 결과 진로결정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진로장벽을 인식하는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김선중(2005)의 연구에서는 성별, 지역, 전공계열, 연구도구의 차이에 상관없이 지각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수준 간의 유의한 부적상관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반면 손은령(2001a)은 타협이론의 관점에서 진로장벽의 개인차는 타협과정을 거치면서 개인의 진로결정 및 진로선택과 같은 진로행동의 차이를 유발한다고 주장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진로장벽은 진로포부의 발달 및 진로결정과 관련되며, 진로선택 과정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가정되었다(손은령, 2002a; Fitzgerald, Fassinger, & Betz, 1995; Lent et al., 2000).

Lent와 Hackett(1994)은 개인변인과 사회맥락 변인이 상호작용하여 개인의 진로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한다. 진로장벽이 진로포부를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연구들은, 진로장벽이 현실과 타협하면서 낮은 지위의 직업을 선택하게 하거나(최용용 외, 2009; Luzzo, 1996), O'Brien과 Fassinger(1993)는 여성은 자녀 양육과 가사 책임의 상당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포부나 흥미 등에 의한 결정이기보다는 부모, 배우자, 직업인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업인지가 진로의사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직업선택은 직업과 관련된 장벽들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김은의, 김봉환, 2009). 선행연구들은 진로장벽의 지각이 진로포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고미나, 2011).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할 경우에 최초로 가지고 있던 진로포부를 낮추게 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진로포부를 낮추는 과정에서 자신의 진로포부와 지각한 진로장벽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 이상으로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여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김양희, 유성경, 2009).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지각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수준 간에는 유의하게 높은 상관관계들을 보고하는 경우도 있으나 몇몇 연구에서는 유의하지

않거나 정적인 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에서는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장벽 지각과 진로포부들의 관계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미취업 기혼여성들이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진로장벽과 진로포부를 설정하였으며,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의 하위 요인들이 진로결정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10개 직업훈련기관 및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을 받기 위해 방문한 30대 이상 60세 미만의 '미취업 기혼여성'이며, 총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한 결과 최종적으로 391부가 회수되었고, 회수한 설문지 가운데 응답성이 불성실하거나 조사내용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를 제외한 385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연구대상을 살펴보면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연구대상 n(%)

변 인	구 분	n(%)	계
연 령	30대	174(45.2)	385(100.0)
	40대	157(40.8)	
	50대	54(14.0)	
경력단절기간	1년 이상	170(44.2)	385(100.0)
	2년 이상	46(11.9)	
	3년 이상	28(7.3)	
	4년 이상	34(8.8)	
	5년 이상	107(27.8)	
학 령	초졸	14(3.6)	385(100.0)
	중졸	10(2.6)	
	고졸	136(35.3)	
	대졸 이상	225(58.5)	
가계 월소득	150만원 미만	74(19.2)	385(100.0)
	150~300만원	176(45.7)	
	300~500만원	107(27.8)	
	500만원 이상	28(7.3)	
자녀수	1명	53(13.8)	385(100.0)
	2명	179(46.5)	
	3명 이상	98(25.4)	
	없음	55(14.3)	
배우자 반응	찬성	273(70.9)	385(100.0)
	반대	13(3.4)	
	보통	99(25.7)	

2. 연구도구

1) 진로장벽 척도

본 연구에서 진로장벽 척도는 손은령(2001a)이 여자대학생용 진로장벽 검사척도로 개발하였던 57문항의 설문지를 최영숙(2004)이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새롭게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수정·재구성하고, 이수분(2009)이 다시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수분(2009)은 진로장벽 하위 요인을 ‘실패에 대한 두려움’(4문항), ‘준비/기술부족’(3문항), ‘의사결정의 어려움’(4문항), ‘배우자에 대한 고려’(3문항), ‘차별’(7문항), ‘고용의 제약’(4문항), ‘자녀양육환경’(7문항) 등으로 7개 요인, 총 32문항으로 구분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진로장벽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진로장벽을 많이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수분(2009)의 연구에서 보고된 진로장벽 검사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요인은 .82, ‘준비/기술부족’ 요인은 .63, ‘의사결정의 어려움’ 요인은 .78, ‘배우자에 대한 고려’ 요인은 .46, ‘차별’ 요인은 .81, ‘고용의 제약’ 요인은 .64, ‘자녀양육환경’ 요인은 .8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요인은 .85, ‘준비/기술부족’ 요인은 .44, ‘의사결정의 어려움’ 요인은 .79, ‘배우자에 대한 고려’ 요인은 .48, ‘차별’ 요인은 .79, ‘고용의 제약’ 요인은 .61, ‘자녀양육환경’ 요인은 .79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장벽 척도 전체는 .88로 확인되었다.

각 하위 요인의 문항 구성은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진로장벽 척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계수

하 위 요 인	문 항 번 호	문항수	cronbach's α
실패에 대한 두려움	1, 10, 15, 17	4	.85
의사결정의 어려움	4, 8, 25, 28	4	.79
준비/기술부족	5, 11, 20	3	.44
배우자에 대한 고려	16, 18, 26	3	.48
고용의 제약	3, 7, 9, 31	4	.61
차별	19, 21, 22, 24, 27, 29, 32	7	.79
자녀양육환경	2, 6, 12, 13, 14, 23, 30	7	.79
합계	32	32	.88

2) 진로포부 척도

본 연구에서 진로포부 척도는 The Career Aspiration Scale(O'Brien, 1992)이 번안하고 최수욱(2002)이 수정·보완한 진로포부 척도를 사용하였다. CAS는 전체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 진로분야에서의 계획과 목표를 측정한다. 진로포부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문항 4, 7, 10은 점수가 높을수록 낮은 진로포부수준을 나타내고, 나머지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포부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민경진(2008)의 연구에서는 진로포부의 하위 요인을 '리더포부'(5문항), '무노력포부'(3문항), '노력포부'(2문항) 등으로 3개 요인, 총 10문항으로 구분하여 요인별 신뢰도(cronbach's α)는 각각 .756, .666, .77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 .80, .56, .75로 나타났으며 진로포부 척도 전체는 .61로 확인되었다.

각 하위 요인의 문항 구성은 <표 III-3>과 같다.

<표 III-3> 진로포부 척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계수

하 위 요 인	문 항 번 호	문항수	cronbach's α
리더 포부	1, 2, 3, 5, 6	4	.80
무노력 포부	4, 7, 10	3	.56
노력 포부	8, 9	3	.75
합계	10	10	.61

3) 진로결정수준 척도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수준 척도는 개인의 진로결정에 방해가 되는 장애요소를 확인하고 진로선택 및 진로미결정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Osipow(1980)등이 개발한 진로결정수준검사를 고향자(1992)가 번안하고 정홍원(2002)이 재구성한 진로결정수준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18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처음 2문항은 진로선택에 대한 확신수준을 나타내며, 다음의 16문항은 진로 미결정의 전제조건을 확인한다. 문항 1, 2는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확신수준을 나

타내고, 문항 3-18은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가 결정된 상태가 아님을 의미한다.

또한 민경진(2008)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수준을 ‘회의적 수준’(6문항), ‘부정적 수준’(4문항), ‘도움필요수준’(6문항), ‘결정된 수준’(2문항) 등으로 4개 요인, 총 18문항으로 구분하였으며 요인별 신뢰도(cronbach's α)는 각각 .720, .587, .552, .71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 .85, .70 .72 .64로 나타났으며 진로결정수준 척도 전체는 .84로 확인되었다.

각 하위 요인의 문항 구성은 <표 III-4>와 같다.

<표 III-4> 진로결정수준 척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계수

하 위 요 인	문 항 번 호	문항수	Cronbach's α
회의적 수준	8, 10, 11, 12, 13, 14	6	.85
부정적 수준	3, 5, 6, 9	4	.70
도움필요 수준	4, 7, 15, 16, 17, 18	6	.72
결정된 수준	1, 2	2	.64
합계	18	18	.84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문항에 대한 이해 정도와 소요시간, 문항의 적절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11년 5월 9일부터 2일간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를 방문한 미취업 기혼여성(30대 10명, 40대 10명, 50대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본 조사 시 필요한 기초정보를 파악하였으며, 문항에 대한 이해정도를 높이기 위해 문장 등을 수정 보완하여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2) 본조사

본 조사는 2011년 5월 12일부터 시작하여 5월 31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10개 직업훈련기관 및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근무하는 각 직업상담원과 면접을 통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배포된 설문지는 각 기관별 조사가 끝난 후 직업상담원을 통해 회수(98%)하였다.

4.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 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e 방법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미취업 기혼여성의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수준, 진로포부와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미취업 기혼여성의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의 하위 요인이 진로결정수준의 하위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 독립변수들 사이에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파악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5%수준으로 설정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미취업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 진로장벽, 진로포부, 진로결정수준 차이

1) 미취업 기혼여성의 연령별 진로장벽 차이

연령에 따른 진로장벽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에 따른 진로장벽 하위 요인별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요인에서 $F=5.812$, ‘준비/기술부족’ 요인에서 $F=12.775$, ‘자녀양육환경’ 요인에서 $F=6.487$ 로 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른 진로장벽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30대 이하’ 집단, ‘40대’ 집단, ‘50대 이상’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IV-1>과 같다.

즉 진로장벽 하위 요인인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는 ‘50대 이상’ 집단이 ‘30대 이하’ 집단과 ‘40대’ 집단보다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준비/기술부족’ 요인에서도 ‘50대’ 집단이 다른 집단 보다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양육환경’ 요인에서는 ‘30대 이하’ 집단이 ‘40대’, ‘50대 이상’ 집단보다 진로장벽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1> 미취업기혼여성의 연령별 진로장벽 차이 검증(one-way ANOVA)

구분	연령	N	평균	표준편차	F	Post-Hoc
실패에 대한 두려움	30대 이하	174	1.9741	.7988	5.8121*	C>A, B
	40대	157	1.8646	.6127		
	50대 이상	54	2.2500	.7203		
의사결정의 어려움	30대 이하	174	2.4641	.8231	1.0754	.
	40대	157	2.4299	.7199		
	50대 이상	54	2.6111	.8546		
준비/기술부족	30대 이하	174	2.7126	.7597	12.7750*	C>A, B
	40대	157	2.8747	.6520		
	50대 이상	54	3.2778	.7736		
배우자에 대한 고려	30대 이하	174	2.5498	.8218	2.2068	.
	40대	157	2.4395	.7615		
	50대 이상	54	2.6852	.6325		
고용의 제약	30대 이하	174	3.5374	.6612	1.6638	.
	40대	157	3.4904	.7183		
	50대 이상	54	3.6852	.5971		
차별	30대 이하	174	3.1519	.6186	1.0726	.
	40대	157	3.1956	.6676		
	50대 이상	54	3.2963	.5957		
자녀양육환경	30대 이하	174	3.2430	.7453	6.4876*	A>B, C
	40대	157	2.9927	.6318		
	50대 이상	54	2.9630	.7453		
진로장벽 전체	30대 이하	174	2.8047	.5033	4.161*	C>B
	40대	157	2.7554	.4312		
	50대 이상	54	2.9669	.4304		

* p<.05

A: 30대 이하, B: 40대, C: 50대 이상

2) 미취업 기혼여성의 연령별 진로포부 차이

연령에 따른 진로포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에 따른 진로포부 하위 요인별로는 ‘무노력포부’ 요인에서 F=5.411으로 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른 진로포부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30대 이하’ 집단, ‘40대’ 집단, ‘50대 이상’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IV-2>와 같다.

즉 진로포부 하위 요인인 ‘무노력포부’에서 ‘50대 이상’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진로포부에 대한 무노력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2> 미취업기혼여성의 연령별 진로포부 차이검증(one-way ANOVA)

구분	연령	N	평균	표준편차	F	Post-Hoc
리더 포부	30대 이하	174	3.8000	.7688	.5100	.
	40대	157	3.7236	.7547		
	50대 이상	54	3.8111	.7345		
무노력 포부	30대 이하	174	2.3276	.7913	5.4114*	C>A, B
	40대	157	2.3864	.7401		
	50대 이상	54	2.7099	.6444		
노력 포부	30대 이하	174	3.9684	.8869	.6510	.
	40대	157	4.0732	.7861		
	50대 이상	54	4.0093	.8356		
진로포부 전체	30대 이하	174	3.8136	.6288	.6660	.
	40대	157	3.8035	.6361		
	50대 이상	54	3.7940	.5911		

* p<.05

A: 30대 이하, B: 40대, C: 50대 이상

3) 미취업 기혼여성의 연령별 진로결정수준 차이

연령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에 따른 진로결정수준 하위 요인별로는 ‘회의적 수준’ 요인에서 F=2.924, ‘부정적 수준’ 요인에서 F=9.394, ‘도움필요 수준’ 요인에서 F=4.578으로 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30대 이하’ 집단, ‘40대’ 집단, ‘50대 이상’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IV-3>과 같다.

즉 진로결정수준 하위 요인인 ‘부정적 수준’에서 ‘50대 이상’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진로결정에 대한 부정적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도움필요 수준’ 요인에서는 ‘40대’ 집단보다 ‘50대 이상’ 집단이 진로결정에 대한 도움필요가 높게 확인되었다. 또한 ‘진로결정수준 전체’에 대해 ‘50대 이상’ 집단의 진로결정수준이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3>미취업기혼여성의 연령별 진로결정수준 차이 검증(one-way ANOVA)

구분	연령	N	평균	표준편차	F	Post-Hoc
회의적 수준	30대 이하	174	2.7308	.7765	2.9244*	.
	40대	157	2.6497	.7049		
	50대 이상	54	2.9383	.8363		
부정적 수준	30대 이하	174	2.4195	.6372	9.3940*	C>A, B
	40대	157	2.5096	.6392		
	50대 이상	54	2.8565	.7048		
도움필요 수준	30대 이하	174	3.0489	.7085	4.5780*	C>B
	40대	157	2.8970	.5809		
	50대 이상	54	3.1821	.6371		
결정된 수준	30대 이하	174	2.9799	.8124	1.5480	.
	40대	157	2.8790	.8231		
	50대 이상	54	3.0926	.7714		
진로결정수준 전체	30대 이하	174	2.7948	.4044	9.826*	C>A, B
	40대	157	2.7338	.4042		
	50대 이상	54	3.0174	.4181		

* p<.05

A: 30대 이하, B: 40대, C: 50대 이상

4) 미취업 기혼여성의 경력단절기간별 진로장벽 차이

경력단절기간에 따른 진로장벽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력단절기간에 따른 진로장벽 하위 요인별로는 ‘준비/기술부족’ 요인에서 F=4.736으로 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력단절기간에 따른 진로장벽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1년 이하’ 집단, ‘3년 이하’ 집단, ‘4년 이하’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IV-4>와 같다.

<표 IV-4> 미취업기혼여성의 경력단절기간별 진로장벽 차이 검증(one-way ANOVA)

구 분	경력단절기간	N	평균	표준편차	F	Post-Hoc
실패에 대한 두려움	1년 이하	170	2.7078	.5701	.9604	.
	2년 이하	46	2.5000	.6276		
	3년 이하	28	2.5357	.5903		
	4년 이하	34	2.8431	.4586		
	5년 이상	107	2.6916	.5051		
의사결정의 어려움	1년 이하	170	1.9706	.7281	1.4221	.
	2년 이하	46	2.0000	.8300		
	3년 이하	28	2.0089	.7920		
	4년 이하	34	1.7426	.5018		
	5년 이상	107	2.0117	.7174		
준비/기술 부족	1년 이하	170	2.4544	.7565	4.7368*	C>A, D
	2년 이하	46	2.6304	.8592		
	3년 이하	28	2.6071	.8645		
	4년 이하	34	2.2426	.7917		
	5년 이상	107	2.4650	.7759		
배우자에 대한 고려	1년 이하	170	2.8255	.7043	.1319	.
	2년 이하	46	2.8696	.7996		
	3년 이하	28	3.3333	1.0184		
	4년 이하	34	2.5392	.6566		
	5년 이상	107	2.8816	.6607		
고용의 제약	1년 이하	170	2.5392	.7226	.9827	.
	2년 이하	46	2.5725	.8245		
	3년 이하	28	2.4881	.8725		
	4년 이하	34	2.4706	.7833		
	5년 이상	107	2.5047	.8195		
차별	1년 이하	170	3.5897	.6609	.3669	.
	2년 이하	46	3.4022	.5951		
	3년 이하	28	3.4643	.6151		
	4년 이하	34	3.4485	.6148		
	5년 이상	107	3.5654	.7666		
자녀양육환경	1년 이하	170	3.1538	.5985	1.9734	.
	2년 이하	46	3.1646	.7432		
	3년 이하	28	3.2092	.5600		
	4년 이하	34	3.2521	.5584		
	5년 이상	107	3.2336	.6914		
진로장벽 전체	1년 이하	170	2.8015	.4308	1.084	.
	2년 이하	46	2.8052	.4945		
	3년 이하	28	2.8730	.5953		
	4년 이하	34	2.6666	.3327		
	5년 이상	107	2.8451	.5131		

* p<.05 A: 1년 이하, B: 2년 이하, C: 3년 이하, D: 4년 이하, E: 5년 이하

5) 미취업 기혼여성의 경력단절기간별 진로포부 차이

경력단절기간에 따른 진로포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력단절기간에 따른 진로포부 하위 요인별로는 ‘노력포부’ 요인에서 F=2.556으로 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력단절기간에 따른 진로포부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IV-5>와 같다.

즉 진로포부 하위 요인인 ‘노력포부’ 요인 평균에서는 경력단절 ‘4년 이하’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력단절 ‘2년 이하’ 집단의 평균이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5> 미취업기혼여성의 경력단절기간별 진로포부 차이 검증(one-way ANOVA)

구 분	경력단절기간	N	평균	표준편차	F	Post-Hoc
리더 포부	1년 이하	170	3.7576	.7572	1.7246	.
	2년 이하	46	3.7913	.7589		
	3년 이하	28	3.5214	.6871		
	4년 이하	34	3.6353	.7603		
	5년 이상	107	3.8897	.7629		
무노력 포부	1년 이하	170	2.3706	.7174	.9221	.
	2년 이하	46	2.3478	.6920		
	3년 이하	28	2.6429	.8262		
	4년 이하	34	2.4804	.8336		
	5년 이상	107	2.3988	.8119		
노력 포부	1년 이하	170	4.0618	.8552	2.5562*	.
	2년 이하	46	3.7500	.9413		
	3년 이하	28	3.8036	.8855		
	4년 이하	34	4.2647	.6879		
	5년 이상	107	4.0374	.7577		
진로포부 전체	1년 이하	170	3.3967	.3962	1.392	.
	2년 이하	46	3.2964	.4223		
	3년 이하	28	3.3226	.4325		
	4년 이하	34	3.4601	.4661		
	5년 이상	107	3.4420	.4298		

* p<.05 A: 1년 이하, B: 2년 이하, C: 3년 이하, D: 4년 이하, E: 5년 이하

6) 미취업 기혼여성의 경력단절기간별 진로결정수준 차이

경력단절기간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력단절기간에 따른 진로결정수준 하위 요인별로는 ‘도움필요 수준’ 요인에서 F=3.989으로 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력단절기간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2년 이하’ 집단과 ‘1년 이하’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IV-6>과 같다.

즉 진로결정수준의 하위 요인별로 집단 간 평균에서 ‘도움필요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진로결정수준 하위 요인인 ‘도움필요 수준’에서 ‘2년 이하’ 집단이 ‘1년 이하’ 집단보다 진로결정에 대한 도움필요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6> 미취업기혼여성의 경력단절기간별 진로결정수준 차이 검증(one-way ANOVA)

구 분	경력단절기간	N	평균	표준편차	F	Post-Hoc
회의적 수준	1년 이하	170	2.7431	.7727	.8640	.
	2년 이하	46	2.8877	.7437		
	3년 이하	28	2.6964	.6574		
	4년 이하	34	2.6078	.7176		
	5년 이상	107	2.6776	.7878		
부정적 수준	1년 이하	170	2.5515	.6389	1.1780	.
	2년 이하	46	2.6141	.7759		
	3년 이하	28	2.3750	.6922		
	4년 이하	34	2.5882	.5466		
	5년 이상	107	2.4369	.6677		
도움필요 수준	1년 이하	170	2.9147	.6630	3.9890*	B>A
	2년 이하	46	3.3406	.5889		
	3년 이하	28	2.9583	.6583		
	4년 이하	34	3.0196	.6287		
	5년 이상	107	3.0140	.6411		
결정된 수준	1년 이하	170	2.9853	.7909	.2100	.
	2년 이하	46	2.9891	.9158		
	3년 이하	28	2.8750	.7653		
	4년 이하	34	2.9412	.8143		
	5년 이상	107	2.9159	.8227		
진로결정수 준 전체	1년 이하	170	2.7987	.3983	2.147	.
	2년 이하	46	2.9579	.4311		
	3년 이하	28	2.7262	.2876		
	4년 이하	34	2.7892	.4721		
	5년 이상	107	2.7611	.4350		

* p<.05 A: 1년 이하, B: 2년 이하, C: 3년 이하, D: 4년 이하, E: 5년 이하

7) 미취업 기혼여성의 학력별 진로장벽 차이

학력에 따른 진로장벽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력에 따른 진로장벽 하위 요인별로는 ‘의사결정의 어려움’ 요인에서 $F=4.423$, ‘준비/기술부족’에서 $F=15.480$ 으로 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력에 따른 진로장벽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초졸’, ‘중졸’, ‘고졸’, ‘대졸 이상’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IV-7>과 같다.

즉 학력에 따른 진로장벽 하위 요인 중에서 ‘준비/기술부족’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졸’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진로에 대한 준비, 기술 부족에 대해 진로장벽을 가장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의 어려움’ 요인에서도 ‘중졸’ 집단이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장벽 전체’에서도 ‘중졸’ 집단이 ‘대졸 이상’ 집단보다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 미취업기혼여성의 학력별 진로장벽 차이 검증(one-way ANOVA)

구분	학력	N	평균	표준편차	F	Post-Hoc
실패에 대한 두려움	초졸	14	2.1429	1.1381	1.6970	.
	중졸	10	2.2750	.5584		
	고졸	136	2.0276	.7439		
	대졸 이상	225	1.9078	.6860		
의사결정의 어려움	초졸	14	2.3750	1.2079	4.4230*	B>D
	중졸	10	3.2250	.9313		
	고졸	136	2.5515	.7608		
	대졸 이상	225	2.3944	.7476		
준비/기술 부족	초졸	14	2.9524	.8950	15.4800*	B>A, C, D
	중졸	10	4.0000	.8749		
	고졸	136	3.0294	.5914		
	대졸 이상	225	2.6978	.7430		
배우자에 대한 고려	초졸	14	2.2381	.5763	1.1717	.
	중졸	10	2.8333	.6136		
	고졸	136	2.5196	.8213		
	대졸 이상	225	2.5304	.7626		
고용의 제약	초졸	14	3.4821	.8173	2.0346	.
	중졸	10	3.6000	.7923		
	고졸	136	3.6507	.6319		
	대졸 이상	225	3.4722	.6863		
차별	초졸	14	3.2041	.5922	2.3628	.
	중졸	10	3.7143	.4364		
	고졸	136	3.1796	.5937		
	대졸 이상	225	3.1721	.6638		
자녀 양육환경	초졸	14	3.0408	.6225	1.3001	.
	중졸	10	2.8714	.5060		
	고졸	136	3.0315	.6996		
	대졸 이상	225	3.1581	.7283		
진로장벽 전체	초졸	14	2.7765	.6127	3.836	B>D
	중졸	10	3.2170	.5418		
	고졸	136	2.8557	.4168		
	대졸 이상	225	2.7618	.4772		

* p<.05

A: 초졸, B: 중졸, C: 고졸, D: 대졸 이상

8) 미취업 기혼여성의 학력별 진로포부 차이

학력에 따른 진로포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력에 따른 진로포부의 하위 요인별로는 ‘리더포부’ 요인에서 F=4.100으로 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력에 따른 진로포부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고졸’ 집단과 ‘대졸 이상’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IV-8>과 같다.

즉 진로포부 하위 요인인 ‘리더포부’ 요인에서 ‘대졸 이상’ 집단이 ‘고졸’ 집단보다 진로포부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력포부’ 요인에서도 ‘대졸 이상’ 집단의 진로포부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8> 미취업기혼여성의 학력별 진로포부 차이 검증(one-way ANOVA)

구분	학력	N	평균	표준편차	F	Post-Hoc
리더 포부	초졸	14	3.8571	.7663	4.1001*	D>C
	중졸	10	3.3200	.3293		
	고졸	136	3.6324	.7896		
	대졸 이상	225	3.8684	.7337		
무노력 포부	초졸	14	2.2619	.6816	1.9415	.
	중졸	10	2.9333	.4661		
	고졸	136	2.4289	.7803		
	대졸 이상	225	2.3763	.7570		
노력 포부	초졸	14	4.0714	1.1242	1.4088	.
	중졸	10	3.6500	.6688		
	고졸	136	3.9412	.8500		
	대졸 이상	225	4.0756	.8107		
진로포부 전체	초졸	14	3.3968	.4760	2.006*	.
	중졸	10	3.3011	.1632		
	고졸	136	3.3342	.4064		
	대졸 이상	225	3.4401	.4268		

* p<.05

A: 초졸, B: 중졸, C: 고졸, D: 대졸 이상

9) 미취업 기혼여성의 학력별 진로결정수준 차이

학력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력에 따른 진로결정수준 하위 요인별로는 ‘회의적 수준’ 요인에서 F=3.776, ‘부정적 수준’ 요인에서 F=4.722, ‘도움필요 수준’ 요인에서 F=3.839, ‘결정된 수준’ 요인에서 F=3.117으로 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에 따른 진로결정수준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초졸’, ‘중졸’, ‘고졸’, ‘대졸 이상’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IV-9>와 같다.

즉 ‘부정적 수준’ 요인에서는 ‘중졸’ 집단이 ‘초졸’, ‘대졸 이상’ 집단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진로결정수준 전체’에 대해서는 ‘고졸’ 집단이 ‘초졸’ 집단보다 진로 결정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 미취업기혼여성의 학력별 진로결정수준 차이 검증(one-way ANOVA)

구분	학력	N	평균	표준편차	F	Post-Hoc
회의적 수준	초졸	14	2.2976	.9831	3.7762*	
	중졸	10	2.9500	1.0032		
	고졸	136	2.8603	.7141		
	대졸 이상	225	2.6630	.7481		
부정적 수준	초졸	14	2.2679	.7035	4.7222*	B>A, D
	중졸	10	3.1750	.5780		
	고졸	136	2.5699	.6381		
	대졸 이상	225	2.4722	.6606		
도움필요 수준	초졸	14	2.9405	.6654	3.8396*	
	중졸	10	3.4167	.7983		
	고졸	136	3.1152	.5711		
	대졸 이상	225	2.9252	.6830		
결정된 수준	초졸	14	2.6071	.7641	3.1173*	
	중졸	10	2.4000	.9944		
	고졸	136	2.9154	.8041		
	대졸 이상	225	3.0244	.8007		
진로결정수준 전체	초졸	14	2.5283	.4457	4.240*	B>D
	중졸	10	2.9854	.6648		
	고졸	136	2.8652	.3746		
	대졸 이상	225	2.7712	.4154		

* p<.05

A: 초졸, B: 중졸, C: 고졸, D: 대졸 이상

10) 미취업 기혼여성의 가계 월 소득별 진로장벽 차이

가계 월 소득에 따른 진로장벽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계 월 소득에 따른 진로장벽의 하위 요인별로는 ‘배우자에 대한 고려’ 요인에서 F=3.025로 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계 월 소득에 따른 진로장벽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500만원 이상’ 집단과 ‘150만원 미만’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IV-10>과 같다.

즉 ‘배우자에 대한 고려’ 요인에서 가계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 집단이 ‘150만원 미만’ 집단보다 배우자에 반응에 따라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10> 미취업기혼여성의 가계 월소득별 진로장벽 차이 검증(one-way ANOVA)

구 분	가계 월소득	N	평균	표준편차	F	Post-Hoc
실패에 대한 두려움	150만원 미만	74	2.1385	.8173	2.6164	.
	150~300만원	176	1.9304	.6424		
	300~500만원	107	1.9766	.7675		
	500만원 이상	28	1.7232	.7433		
의사결정의 어려움	150만원 미만	74	2.5878	.9331	2.1668	.
	150~300만원	176	2.4957	.7228		
	300~500만원	107	2.4299	.8139		
	500만원 이상	28	2.1607	.5742		
준비/기술부족	150만원 미만	74	2.9955	.9124	1.5655	.
	150~300만원	176	2.8011	.6356		
	300~500만원	107	2.8910	.7672		
	500만원 이상	28	2.7262	.7373		
배우자에 대한 고려	150만원 미만	74	2.5090	.8390	3.0258*	D>A
	150~300만원	176	2.4394	.6920		
	300~500만원	107	2.5763	.8236		
	500만원 이상	28	2.8929	.8317		
고용의 제약	150만원 미만	74	3.5000	.7071	.4707	.
	150~300만원	176	3.5639	.6323		
	300~500만원	107	3.5561	.7099		
	500만원 이상	28	3.4196	.7700		
차별	150만원 미만	74	3.2896	.6514	1.2789	.
	150~300만원	176	3.2021	.6130		
	300~500만원	107	3.1348	.6514		
	500만원 이상	28	3.0612	.6705		
자녀양육환경	150만원 미만	74	3.1583	.6013	.2651	.
	150~300만원	176	3.0982	.7005		
	300~500만원	107	3.0868	.8066		
	500만원 이상	28	3.0306	.6816		
진로장벽 전체	150만원 미만	74	2.8227	.4712	1.067	.
	150~300만원	176	2.7901	.3958		
	300~500만원	107	2.8074	.5596		
	500만원 이상	28	2.7164	.5053		

* p<.05 A: 150만원 미만, B: 150~300만원, C: 300~500만원, D: 500만원 이상

11) 미취업 기혼여성의 가계 월 소득별 진로포부 차이

가계 월 소득에 따른 진로포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계 월 소득에 따른 진로포부 하위 요인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계 월 소득에 따른 진로포부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IV-11>과 같다.

<표 IV-11> 미취업기혼여성의 가계 월소득별 진로포부 차이 검증(one-way ANOVA)

구 분	가계 월소득	N	평균	표준편차	F	Post-Hoc
리더 포부	150만원 미만	74	3.7297	.8565	1.8834	
	150~300만원	176	3.6932	.7431		
	300~500만원	107	3.8897	.7096		
	500만원 이상	28	3.9071	.7065		
무노력 포부	150만원 미만	74	2.3423	.7504	.5767	
	150~300만원	176	2.3807	.7204		
	300~500만원	107	2.4673	.7266		
	500만원 이상	28	2.4881	1.1055		
노력 포부	150만원 미만	74	4.1081	.8769	2.3184	
	150~300만원	176	3.8977	3.8977		
	300~500만원	107	4.1028	4.1028		
	500만원 이상	28	4.0169	4.1964		
진로포부 전체	150만원 미만	74	3.3934	.4168	0.932	
	150~300만원	176	3.3239	.3972		
	300~500만원	107	3.4866	.3536		
	500만원 이상	28	3.5306	.6521		

* p<.05 A: 150만원 미만, B: 150~300만원, C: 300~500만원, D: 500만원 이상

12) 미취업 기혼여성의 가계 월 소득별 진로결정수준 차이

가계 월 소득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계 월 소득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의 하위 요인별로는 ‘결정된 수준’ 요인에서 F=3.220으로 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

계 월 소득에 따른 진로결정수준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IV-12>와 같다.

즉 진로결정수준 하위 요인인 ‘결정된 수준’에서 ‘300~500만원’집단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각 요인별로 가계 월 소득이 많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12> 미취업기혼여성의 가계월소득별 진로결정수준 차이 검증(one-way ANOVA)

구 분	가계 월소득	N	평균	표준편차	F	Post-Hoc
회의적 수준	150만원 미만	74	2.7523	.8382	1.5306	.
	150~300만원	176	2.7756	.6930		
	300~500만원	107	2.7009	.8238		
	500만원 이상	28	2.4524	.6756		
부정적 수준	150만원 미만	74	2.6297	.6886	1.3067	.
	150~300만원	176	2.5943	.5581		
	300~500만원	107	2.5196	.7030		
	500만원 이상	28	2.3786	.8456		
도움필요 수준	150만원 미만	74	3.0788	.7227	2.1375	.
	150~300만원	176	3.0625	.6281		
	300~500만원	107	2.8910	.6765		
	500만원 이상	28	2.8929	.4890		
결정된 수준	150만원 미만	74	2.8108	.7795	3.2204*	.
	150~300만원	176	2.8892	.7195		
	300~500만원	107	3.1449	.9240		
	500만원 이상	28	3.0179	.8973		
진로결정수준 전체	150만원 미만	74	2.8024	.5219	2.337	.
	150~300만원	176	2.8132	.3648		
	300~500만원	107	2.8104	.3941		
	500만원 이상	28	2.6868	.4815		

* p<.05 A: 150만원 미만, B: 150~300만원, C: 300~500만원, D: 500만원 이상

13) 미취업 기혼여성의 자녀수별 진로장벽차이

자녀수에 따른 진로장벽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녀수에 따른 진로장벽의 하위 요인별로는 ‘준비/기술부족’ 요인에서 F=3.232, ‘차별’ 요인에서 F=3.602로 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수에 따른 진로장벽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녀수가 ‘없음’ 집단, ‘3명 이상’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IV-13>과 같다.

즉 ‘준비/기술부족’ 요인에서는 자녀수가 ‘3명 이상’ 인 집단이 자녀수가 없는 집단보다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 미취업기혼여성의 자녀수별 진로장벽 차이 검증(one-way ANOVA)

구분	자녀수	N	평균	표준편차	F	Post-Hoc
실패에 대한 두려움	1명	53	2.0330	.6393	1.2603	.
	2명	179	1.9762	.6949		
	3명 이상	98	1.8596	.8187		
	없음	55	2.0727	.7228		
의사결정의 어려움	1명	53	2.4764	.7227	.5962	.
	2명	179	2.4581	.7899		
	3명 이상	98	2.5459	.8321		
	없음	55	2.3727	.7651		
준비/기술 부족	1명	53	2.7736	.7389	3.2320*	C>D
	2명	179	2.8566	.7611		
	3명 이상	98	3.0204	.6542		
	없음	55	2.6545	.7803		
배우자에 대한 고려	1명	53	2.4025	.6991	1.8691	.
	2명	179	2.5344	.7330		
	3명 이상	98	2.4592	.8662		
	없음	55	2.7212	.7929		
고용의 제약	1명	53	3.4057	.7292	1.7721	.
	2명	179	3.5922	.6817		
	3명 이상	98	3.5816	.6627		
	없음	55	3.4182	.6256		
차별	1명	53	3.0593	.7249	3.6025*	.
	2명	179	3.2594	.5984		
	3명 이상	98	3.2464	.6447		
	없음	55	2.9896	.6048		
자녀양육환경	1명	53	3.0270	.6401	1.5028	.
	2명	179	3.1836	.7330		
	3명 이상	98	3.0219	.7701		
	없음	55	3.0494	.5683		
진로장벽 전체	1명	53	2.7396	.4841	.867	.
	2명	179	2.8372	.4546		
	3명 이상	98	2.8193	.4944		
	없음	55	2.7541	.4556		

* p<.05

A: 1명, B: 2명, C: 3명 이상, D: 없음

14) 미취업 기혼여성의 자녀수별 진로포부차이

자녀수에 따른 진로포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녀수에 따른 진로포부의 하위 요인별로는 ‘무노력 포부’ 요인에서 $F=2.787$ 로 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수에 따른 진로장벽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IV-14>와 같다.

<표 IV-14> 미취업기혼여성의 자녀수별 진로포부 차이 검증(one-way ANOVA)

구 분	자녀수	N	평균	표준편차	F	Post-Hoc
리더 포부	1명	53	3.6226	.8976	.9065	
	2명	179	3.7754	.7166		
	3명 이상	98	3.7980	.7313		
	없음	55	3.8473	.7878		
무노력 포부	1명	53	2.2516	.7306	2.7873*	
	2명	179	2.5196	.7781		
	3명 이상	98	2.3503	.7008		
	없음	55	2.2788	.7929		
노력 포부	1명	53	3.9245	.9874	2.3148	
	2명	179	4.0391	.7816		
	3명 이상	98	3.8980	.8644		
	없음	55	4.2455	.7630		
진로포부 전체	1명	53	3.2662	.4312	1.148	
	2명	179	3.4447	.4351		
	3명 이상	98	3.3488	.4133		
	없음	55	3.4572	.3237		

* $p < .05$

A: 1명, B: 2명, C: 3명 이상, D: 없음

15) 미취업 기혼여성의 자녀수별 진로결정수준차이

자녀수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녀수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의 하위 요인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수에 따른 진로결정수준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IV-15>와 같다.

<표 IV-15> 미취업기혼여성의 자녀수별 진로결정수준 차이 검증(one-way ANOVA)

구 분	자녀수	N	평균	표준편차	F	Post-Hoc
회의적 수준	1명	53	2.7642	.6742	1.0192	
	2명	179	2.7803	.7722		
	3명 이상	98	2.6854	.7457		
	없음	55	2.5909	.8252		
부정적 수준	1명	53	2.5321	.54341	.4453	
	2명	179	2.5821	.6728		
	3명 이상	98	2.5959	.6636		
	없음	55	2.4836	.6562		
도움필요 수준	1명	53	2.8742	.5546	1.7368	
	2명	179	3.0801	.6850		
	3명 이상	98	2.9779	.6509		
	없음	55	2.9394	.6386		
결정된 수준	1명	53	3.0472	.6670	1.5028	
	2명	179	2.8827	.8364		
	3명 이상	98	2.9592	.8176		
	없음	55	3.0909	.8449		
진로결정 수준 전체	1명	53	2.8011	.3749	1.166	
	2명	179	2.8139	.4346		
	3명 이상	98	2.7946	.4035		
	없음	55	2.7712	.4190		

* p<.05

A: 1명, B: 2명, C: 3명 이상, D: 없음

16) 미취업 기혼여성의 취업에 대한 배우자 반응별 진로장벽차이

취업에 대한 배우자 반응에 따른 진로장벽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취업에 대한 배우자 반응에 따른 진로장벽의 하위 요인별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요인에서 F=7.014, '의사결정의 어려움' 요인에서 F=4.527, '배우자에 대한 고려' 요인에서 F=30.851, '차별' 요인에서 F=5.459, '자녀양육환경' 요인에서 F=5.946으로 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우자 반응에 따른 진로장벽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 검

증을 실시한 결과, ‘찬성’ 집단과 ‘반대’, ‘보통’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IV-16>과 같다.

즉 ‘배우자에 대한 고려’ 요인에서 ‘반대’ 집단이 ‘찬성’, ‘보통’ 집단보다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결정의 어려움’ 요인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요인에서는 ‘보통’ 집단이 ‘찬성’ 집단 보다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16> 미취업 기혼여성의 배우자반응별 진로장벽 차이 검증(one-way ANOVA)

구 분	배우자반응	N	평균	표준편차	F	Post-Hoc
실패에 대한 두려움	찬성	273	1.8855	.6833	7.0145*	B>A
	반대	13	1.9423	.5016		
	보통	99	2.1995	.8160		
의사결정의 어려움	찬성	273	2.3965	.7871	4.5277*	B>A
	반대	13	2.5000	.5000		
	보통	99	2.6717	.7895		
준비/기술부족	찬성	273	2.8193	.7469	1.8708	
	반대	13	2.7436	.6109		
	보통	99	2.9798	.7344		
배우자에 대한 고려	찬성	273	2.3565	.7381	30.8516*	B>A, C
	반대	13	3.5641	.6293		
	보통	99	2.8485	.6856		
고용의 제약	찬성	273	3.5119	.6715	1.0843	
	반대	13	3.7500	.7144		
	보통	99	3.5859	.6908		
차별	찬성	273	3.1251	.6489	5.4591*	C>A
	반대	13	3.5055	.5643		
	보통	99	3.3276	.5780		
자녀양육환경	찬성	273	3.0262	.7371	5.9468*	C>A
	반대	13	3.4725	.7104		
	보통	99	3.2612	.5933		
진로장벽 전체	찬성	273	2.7316	.4579	13.236*	B>A, C>A
	반대	13	3.0683	.3927		
	보통	99	2.9820	.4529		

* p<.05

A: 찬성, B: 반대, C: 보통

17) 미취업 기혼여성의 취업에 대한 배우자 반응별 진로포부차이

취업에 대한 배우자 반응에 따른 진로포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배우자 반응에 따른 진로포부의 하위 요인별로는 ‘리더포부’ 요인에서 $F=3.056$, ‘무노력 포부’ 요인에서 $F=3.381$, ‘노력포부’ 요인에서 $F=3.825$ 로 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우자 반응에 따른 진로포부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진로포부 전체’에서 ‘찬성’ 집단과 ‘보통’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IV-17>과 같다.

즉 진로장벽 하위 요인별로 배우자가 취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기혼여성의 진로포부는 높게 나타났다.

<표 IV-17> 미취업기혼여성의 배우자반응별 진로포부 차이 검증(one-way ANOVA)

구 분	배우자반응	N	평균	표준편차	F	Post-Hoc
리더 포부	찬성	273	3.8205	.7549	3.0561*	
	반대	13	3.9231	.6858		
	보통	99	3.6121	.7569		
무노력 포부	찬성	273	2.3419	.8010	3.3810*	
	반대	13	2.6410	.5847		
	보통	99	2.5488	.6341		
노력 포부	찬성	273	4.0879	.8256	3.8254*	
	반대	13	3.6538	.6253		
	보통	99	3.8687	.8619		
진로포부 전체	찬성	273	3.8556	.4280	4.610*	A>C
	반대	13	3.6453	.4601		
	보통	99	3.6440	.3856		

* $p<.05$

A: 찬성, B: 반대, C: 보통

18) 미취업 기혼여성의 취업에 대한 배우자 반응별 진로결정수준차이

취업에 대한 배우자 반응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배우자 반응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의 하위 요인별로는 ‘부

정적 수준' 요인에서 F=8.621로 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 반응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의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보통' 집단과 '찬성'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IV-18>과 같다.

즉 취업에 대한 배우자의 반응이 긍정적일수록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부정적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표 IV-18> 미취업기혼여성의 배우자반응별 진로결정수준 차이 검증(one-way ANOVA)

구 분	배우자반응	N	평균	표준편차	F	Post-Hoc
회의적 수준	찬성	273	2.6758	.7908	2.2385	.
	반대	13	2.7564	.2511		
	보통	99	2.8636	.7056		
부정적 수준	찬성	273	2.4850	.6392	7.3325*	C>A
	반대	13	2.8154	.6854		
	보통	99	2.7515	.6364		
도움필요 수준	찬성	273	3.0208	.6901	.2824	.
	반대	13	3.0128	.5067		
	보통	99	2.9630	.5712		
결정된 수준	찬성	273	2.9799	.8228	.8321	.
	반대	13	3.0769	.6723		
	보통	99	2.8687	.8005		
진로결정수준 전체	찬성	273	2.7767	.4323	2.137	.
	반대	13	2.9183	.3032		
	보통	99	2.8531	.3745		

* p<.05

A: 찬성, B: 반대, C: 보통

2. 미취업 기혼여성의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개인적 특성에 따른 미취업 기혼여성의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로장벽의 7개 하위 요인과 진로결정수준 4개 하위 요인 간 단순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IV-19>와 같다.

<표 IV-1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수준 전체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진로장벽의 하위 요인인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의사결정의 어려움', '준비/기술부족', '배우자에 대한 고려', '고용의 제약', '차별', '자녀양육환경' 요인과 진로결정수준의 하위 요인인 '회의적 수준', '부정적 수준', '도움필요 수준'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진로장벽의 각 하위 요인별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의 하위 요인인 '결정된 수준'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가 부적 상관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진로장벽의 하위 요인인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의사결정의 어려움, 준비/기술부족, 배우자에 대한 고려, 고용의 제약, 차별, 자녀양육환경이 진로결정수준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진로장벽은 진로결정수준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정홍원(2002), 민경진(2008), 김동숙(201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표 IV-19> 미취업기혼여성의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실패에 대한 두려움	1.00												
2.의사결정의 어려움	.59**	1.00											
3.준비/기술부족	.43**	.56**	1.00										
4.배우자 대한 고려	.39**	.32**	.18**	1.00									
5.고용의 제약	.09**	.26**	.28**	.15**	1.00								
6.차별	.19**	.28**	.28**	.32**	.55**	1.00							
7.자녀양육환경	.23**	.19**	.10**	.38**	.43**	.64**	1.00						
8.진로장벽 전체	.66**	.72**	.63**	.61**	.59**	.69**	.64**	1.00					
9.회의적 수준	.46**	.72**	.42**	.28**	.32**	.39**	.34**	.65**	1.00				
10.부정적 수준	.45**	.49**	.31**	.33**	.19**	.32**	.23**	.52**	.61**	1.00			
11.도움필요 수준	.28**	.53**	.35**	.17**	.43**	.45**	.35**	.56**	.71**	.48**	1.00		
12.결정된 수준	-.23**	-.43**	-.26**	-.13**	-.33**	-.24**	-.25**	-.41**	-.40**	-.20**	-.35**	1.00	
13.진로결정수준 전체	-.46**	-.71**	-.44**	-.30**	-.42**	-.45**	-.38**	-.69**	-.88**	-.72**	-.81**	.67**	1.00

** p<.01, * p<.05

3. 미취업 기혼여성의 진로포부와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개인적 특성에 따른 미취업 기혼여성의 진로포부와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로포부의 3개 하위 요인과 진로결정수준 4개 하위 요인 간 단순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IV-20>과 같다.

<표 IV-2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진로포부와 진로결정수준 전체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진로포부의 하위 요인인 ‘리더포부’와 진로결정수준의 하위 요인인 ‘회의적 수준’, ‘부정적 수준’은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도움필요 수준’과 ‘결정된 수준’에서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진로포부의 하위 요인인 ‘무노력 포부’는 진로결정수준의 하위 요인인 ‘회의적 수준’, ‘부정적 수준’, ‘도움필요 수준’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결정된 수준’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진로포부의 하위 요인인 ‘노력 포부’는 진로결정수준의 하위 요인인 ‘회의적 수준’, ‘부정적 수준’, ‘도움필요 수준’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결정된 수준’에서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진로포부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가 정적 상관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진로포부의 하위 요인인 리더포부, 무노력포부, 노력포부는 진로결정수준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진로포부는 진로결정수준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정홍원(2002), 최수옥(2002), 민경진(2008), 고미나(201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표 IV-20> 미취업기혼여성의 진로포부와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구 분	1	2	3	4	5	6	7	8	9
1. 리더포부	1.00								
2. 무노력포부	-.49**	1.00							
3. 노력포부	.56**	-.33**	1.00						
4. 진로포부 전체	.85**	-.75**	.80**	1.00					
5. 회의적 수준	-.14**	.20**	-.32**	-.28**	1.00				
6. 부정적 수준	-.15**	.21**	-.28**	-.27**	.61**	1.00			
7. 도움필요 수준	.03	0.05	-.15**	-.08	.71**	.48**	1.00		
8. 결정된 수준	.11*	-.16**	.15**	.18**	-.40**	-.20**	-.35**	1.00	
9. 진로결정수준 전체	.12*	-.21**	.29**	.26**	-.88**	-.72**	-.81**	.67**	1.00

** p<.01, * p<.05

4. 미취업 기혼여성의 진로장벽과 진로포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1) 미취업기혼여성의 진로장벽 하위 요인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미취업 기혼여성의 진로장벽 하위 요인인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의사결정의 어려움’, ‘준비/기술부족’, ‘배우자 고려’, ‘고용의 제약’, ‘차별’, ‘자녀양육환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IV-21>과 같다.

<표 IV-21> 미취업기혼여성의 진로장벽 하위 요인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R ²	F	β	t	공차 한계	VIF
회의적 수준	실패 두려움	.57	69.98***	.05	1.05	.567	1.763
	의사결정 어려움			.63	13.33***	.518	1.930
	준비/기술부족			.00	.04	.624	1.602
	배우자 고려			-.02	-.62	.742	1.347
	고용 제약			.05	1.06	.637	1.570
	차별			.11	2.13**	.474	2.109
	자녀양육환경			.13	2.72**	.526	1.901
부정적 수준	실패 두려움	.32	25.61***	.21	3.64***	.567	1.763
	의사결정 어려움			.230	5.05***	.518	1.930
	준비/기술부족			-.01	-.25	.624	1.602
	배우자 고려			.11	2.25*	.742	1.347
	고용 제약			-.01	-.21	.637	1.570
	차별			.19	3.09**	.474	2.109
	자녀양육환경			-.03	-.46	.526	1.901
도움필요 수준	실패 두려움	.41	37.87***	-.03	-.61	.567	1.763
	의사결정 어려움			.45	8.14***	.518	1.930
	준비/기술부족			.01	.26	.624	1.602
	배우자 고려			-.08	-1.76	.742	1.347
	고용 제약			.18	3.61***	.637	1.570
	차별			.18	3.20**	.474	2.109
	자녀양육환경			.11	1.93	.526	1.901
결정된 수준	실패 두려움	.25	18.17***	.04	.61	.567	1.763
	의사결정 어려움			-.40	-6.54***	.518	1.930
	준비/기술부족			-.01	-.09	.624	1.602
	배우자 고려			.05	.94	.742	1.347
	고용 제약			-.20	-3.60***	.637	1.570
	차별			.07	1.10	.474	2.109
	자녀양육환경			-.16	-2.62**	.526	1.901
진로결정 수준 (전체)	실패 두려움	.59	78.58***	-.06	-1.26	.567	1.763
	의사결정 어려움			-.58	-12.80***	.518	1.930
	준비/기술부족			-.00	-.05	.624	1.602
	배우자 고려			.02	.44	.742	1.347
	고용 제약			-.14	-3.36**	.637	1.570
	차별			-.12	-2.54*	.474	2.109
	자녀양육환경			-.13	-2.77**	.526	1.901

* p<.05, ** p<.01, *** p<.001

<표 IV-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중공선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진로장벽 하위 요인별로 ‘진로결정수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의사결정의 어려움’(β=-.58, p<.001), ‘고용의 제약’(β=-.14, p<.01) 순으로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결정수준 전체’에 대한 진로장벽의 하위 요인의 설명량은 59%로 나타났다.

진로장벽 하위 요인별로 진로결정수준 하위 요인인 ‘회의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의사결정의 어려움’(β=.63, p<.001), ‘자녀양육환경’(β=.13, p<.01) 순으로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의적 수준에 대한 진로장벽의 하위 요인의 설명량은 57%로 나타났다.

진로장벽 하위 요인별로 진로결정수준 하위 요인인 ‘부정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의사결정의 어려움’(β=.23, p<.001), ‘실패에 대한 두려움’(β=.21, p<.001) 순으로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수준’에 대한 진로장벽의 하위 요인의 설명량은 32%로 나타났다.

진로장벽 하위 요인별로 진로결정수준 하위 요인인 ‘도움필요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의사결정의 어려움’(β=.45, p<.001), ‘고용의 제약’(β=.18, p<.001) 순으로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움필요 수준’에 대한 진로장벽의 하위 요인의 설명량은 41%로 나타났다.

진로장벽 하위 요인별로 진로결정수준 하위 요인인 ‘결정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의사결정의 어려움’(β=-.40, p<.001), ‘고용의 제약’(β=-.20, p<.001) 순으로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정된 수준’에 대한 진로장벽의 하위 요인의 설명량은 2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미취업 기혼여성의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설명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진로장벽 하위 요인 중 ‘의사결정의 어려움’ 요인이 진로결정수준 하위 요인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취업 기혼여성들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진로장벽의 내적 요인보다는 외적 요인들에 대한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여전히 기혼여성의 취업에 대해 비협조적인 사회적, 제도적 환경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의사결정이 어려운 미취업 기혼여성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종발굴과 더불어 기혼여성들의 눈높이를 조절

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취업준비를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2) 미취업기혼여성의 진로포부 하위 요인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미취업 기혼여성의 진로포부 하위 요인인 ‘리더포부’, ‘무노력포부’, ‘노력포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IV-22> 와 같다.

<표 IV-22> 미취업기혼여성의 진로포부 하위 요인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R ²	F	β	t	공차 한계	VIF
회의적 수준	리더포부	.12	17.38***	.12	1.97*	.587	1.705
	무노력포부			.16	2.83**	.758	1.319
	노력포부			-.33	-5.76***	.687	1.456
부정적 수준	리더포부	.10	13.30***	.07	1.07	.587	1.705
	무노력포부			.16	2.78**	.758	1.319
	노력포부			-.26	-4.48***	.687	1.456
도움 필요 수준	리더포부	.05	6.04***	.20	3.02**	.587	1.705
	무노력포부			.07	1.25	.758	1.319
	노력포부			-.24	-3.92***	.687	1.456
결정된 수준	리더포부	.04	4.82**	-.02	-.36	.587	1.705
	무노력포부			-.13	-2.20*	.758	1.319
	노력포부			.13	2.07*	.687	1.456
진로결정 수준 (전체)	리더포부	.11	15.42***	-.13	-2.05*	.587	1.705
	무노력포부			-.17	-3.01**	.758	1.319
	노력포부			.31	5.29***	.687	1.456

* p<.05, ** p<.01, *** p<.001

<표 IV-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중공선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진로포부

하위 요인별로 '진로결정수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노력포부'($\beta=.31, p<.001$), '무노력포부'($\beta=-.17, p<.01$) 순으로 '노력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결정수준 전체'에 대한 진로포부의 하위 요인의 설명량은 11%로 나타났다.

진로포부 하위 요인별로 진로결정수준 하위 요인인 '회의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노력포부'($\beta=-.33, p<.001$), '무노력포부'($\beta=.16, p<.01$) 순으로 '노력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의적 수준'에 대한 진로포부의 하위 요인의 설명량은 12%로 나타났다.

진로포부 하위 요인별로 진로결정수준 하위 요인인 '부정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노력포부'($\beta=-.26, p<.001$), '무노력포부'($\beta=.16, p<.01$) 순으로 '노력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수준'에 대한 진로포부의 하위 요인의 설명량은 10%로 나타났다.

진로포부 하위 요인별로 진로결정수준 하위 요인인 '도움필요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노력포부'($\beta=-.24, p<.001$), '리더포부'($\beta=.20, p<.01$) 순으로 '노력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움필요 수준'에 대한 진로장벽의 하위 요인의 설명량은 5%로 나타났다.

진로포부 하위 요인별로 진로결정수준 하위 요인인 '결정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무노력포부'($\beta=-.13, p<.05$), '노력포부'($\beta=.13, p<.05$) 순으로 '노력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정된 수준'에 대한 진로장벽의 하위 요인의 설명량은 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미취업 기혼여성들의 진로포부가 진로결정수준에 설명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진로포부의 하위 요인 중 노력포부와 무노력포부가 진로결정수준 하위 요인 대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로포부 하위 요인인 노력포부가 긍정적 변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진로결정수준에 노력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취업 기혼여성들의 취업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취업 기혼여성들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및 상담, 그리고 사회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다.



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는 미취업 기혼여성의 개인적 특성별 진로장벽, 진로포부, 진로결정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고, 미취업 기혼여성의 진로장벽과 진로포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가 밝히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 미취업 기혼여성의 개인적 특성(연령, 경력단절기간, 학력, 가계 월 소득, 자녀 수, 취업에 대한 배우자 반응)별 진로장벽, 진로포부, 진로결정수준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 미취업 기혼여성의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수준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 미취업 기혼여성의 진로포부와 진로결정수준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4 : 미취업 기혼여성의 진로장벽과 진로포부는 진로결정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10개 직업훈련기관 및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의 미취업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진로장벽 척도와 진로포부 척도 그리고 진로결정수준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측정도구는 미취업 기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진로장벽 검사를 위하여 최영숙(2004)이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새롭게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수정.

재구성하고 이수분(2009)이 다시 재구성한 ‘진로장벽 척도’를 사용하였고, 미취업 기혼여성의 진로포부 검사를 위해 The Career Aspiration Scale(O'Brien, 1992)이 번안하고 최수옥(2002)이 수정·보완한 ‘진로포부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진로결정수준 검사를 위해 Osipow(1980)등이 개발한 진로결정검사를 고향자(1992)가 번안하고 정홍원(2002)이 재구성한 ‘진로결정수준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for Window 12.0 프로그램에 의해 분산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취업 기혼여성의 개인적 특성별 진로장벽, 진로포부, 진로결정수준 차이에 있어 미취업 기혼여성이 연령별 진로장벽은 7개의 하위요인 중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준비/기술부족’, ‘자녀양육환경’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연령별 진로포부는 3개의 하위요인 중에서 ‘무노력포부’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연령별 진로결정수준은 4개의 하위요인 중에서 ‘회의적 수준’, ‘부정적 수준’, ‘도움필요 수준’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가설 1-1은 긍정되었다.

경력단절별 진로장벽은 ‘준비/기술부족’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경력단절별 진로포부는 ‘노력포부’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경력단절별 진로결정수준은 ‘도움필요수준’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따라서 가설 1-2는 긍정되었다.

학력별 진로장벽은 ‘의사결정의 어려움’, ‘준비/기술부족’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학력별 진로포부는 ‘리더포부’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학력별 진로결정수준은 4개 요인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따라서 가설 1-3은 긍정되었다.

가계 월 소득별 진로장벽은 ‘배우자에 대한 고려’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가계 월 소득별 진로포부는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가계 월 소득별 진로결정수준은 ‘결정된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따라서 가설 1-4는 가계 월 소득별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긍정되었다.

자녀수별 진로장벽은 ‘준비/기술부족’, ‘차별’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자녀수별 진로포부는 진로포부 전체와 ‘무노력포부’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자녀수별 진로결정수준은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따라서 가설 1-5는 자녀수별 진로장벽과 진로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긍정되었다.

취업에 대한 배우자 반응별 진로장벽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의사결정의 어려움’, ‘배우자에 대한 고려’, ‘차별’, ‘자녀양육환경’ 요인과 진로장벽 전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배우자 반응별 진로포부는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취업에 대한 배우자 반응별 진로결정수준은 ‘부정적 수준’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따라서 가설 1-6는 긍정되었다.

둘째, 미취업 기혼여성의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수준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진로장벽 전체와 진로결정수준 하위 요인인 ‘결정된 수준’에서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가장 높은 부적 상관($r=-.46, p<.01$)을 보였으며, 진로장벽 7개의 하위 요인은 진로결정수준의 하위 요인인 ‘결정된 수준’에 모두 유의한 수준($p<.01$)에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가설 2는 긍정되었다.

셋째, 미취업 기혼여성의 진로포부와 진로결정수준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진로포부 전체와 진로결정수준 하위 요인인 ‘결정된 수준’에서 ‘노력포부’가 가장 높은 정적 상관($r=.29, p<0.1$)을 보였으며, 리더포부는 유의한 수준에서 정적 상관($r=.12, p<0.5$)을 보였다. 따라서 가설 3은 긍정되었다.

넷째, 미취업 기혼여성의 진로장벽과 진로포부는 진로결정수준에 대해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며, 미취업 기혼여성의 진로장벽은 진로결정수준 4개 하위 요인 모두에 대하여 영향력이 유의하다. 그 중 ‘회의적 수준’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유의하였으며, 진로장벽의 ‘의사결정 어려움’ 요인이 진로결정수준 모든 하위 요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미취업 기혼여성의 진로포부는 진로결정 4개 하위 요인 모두에 대하여 영향력이 유의하다. 그 중 ‘회의적 수준’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유의하였으며, 진로포부의 ‘노력포부’ 요인이 진로결정수준 모든 하위 요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가설 4는 긍정되었다.

2. 결론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하여 얻어진 결론을 제시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취업 기혼여성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은 연령, 경력단절기간, 학력, 가계 월 소득, 자녀수, 취업에 대한 배우자 반응에 따라 진로장벽의 내용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 집단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준비/기술부족' 요인이 '30대 이하' 집단과 '40대' 집단보다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했다. 이에 '50대 이상' 미취업 기혼여성들에게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막연한 걱정과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직업교육 참여를 통해 구체적으로 진로준비에 착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30대 이하' 집단이 '자녀양육환경' 요인에서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했으며, 이는 M커브 현상에서와 같이 '30대 이하' 집단에서 가사와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이 발생하는 것과 일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 조사 자료에 따르면, 30대 기혼여성의 취업 장애요인으로 '육아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30대 기혼여성의 직업진로교육에서는 이들이 안고 있는 육아 부담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현실적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진로결정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력단절기간별로는 '3년 이하' 집단이 '준비/기술부족' 요인에 대해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했다. 최영숙(2004)과 최정원(2005)의 연구에서는 경력단절기간에 따른 진로장벽 지각 차이를 살펴본 결과, 경력단절기간이 짧을수록 진로장벽을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연구 결과에서는 경력단절기간이 짧을수록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제주지역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57.3%로 전국 1위(통계청, 2010)를 나타내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연보(2008)에 따르면, 제주지역 여성경제활동 참가에 따른 직종을 분

야별로 살펴본 결과 제주지역 여성이 대표자인 사업체는 주로 숙박업이 15.3%, 도매 및 소매업이 13.5%를 차지하고 있어, 제주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분야가 3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한다. 즉 제주지역이 농림어업 부문이 많고 관광지 특성상 소규모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며, 경력단절기간에도 제주지역 여성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지 않아도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3차 산업에 아르바이트나 단기간 일자리를 찾아 일을 많이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학력별로는 중졸 집단이 ‘의사결정의 어려움’ 요인과 ‘준비/기술부족’ 요인에서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했다. 특히 학력이 낮을수록 ‘준비/기술부족’ 요인에 대한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했다. 이에 저학력 미취업 기혼여성들에게 특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제공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기혼여성의 학력에 따라 진로장벽의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혼여성의 직업진로교육에서 기혼여성의 학력을 고려하여 차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가계 월 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 집단이 ‘배우자에 대한 고려’ 요인에서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했다. 이수분(2009)의 연구에서 미취업 기혼여성이 가계 월 소득이 높을수록 배우자에 대한 고려 장벽을 높게 지각하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인천시 비취업 기혼여성 취업욕구 실태조사(2006)에 따르면 아내의 취업을 반대하는 남편은 학력이 높고 소득이 많을수록 높았으며, 이러한 고학력 중산층 미취업 기혼여성들은 경력단절로 인해 시장판매력을 갖지 못하면서도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한다. 또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를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 대한 배려로 인한 것으로 보고한다. 이는 앞으로 여성의 진로교육에서 자기계발과 함께 직업개발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전문 직업인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성의 취업에 대한 태도와 의식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자녀수별 진로장벽은 자녀수가 ‘3명 이상’인 집단이 ‘준비/기술부족’ 요인에서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했다. 이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미취업 기혼여성들이 취업을 준비하는데 있어 자녀가 없는 집단보다 취업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직업교육 등 진로준비에 착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수분(2009)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 본인의 취업 시기를 조사한 결과,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어린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취업을 하겠다’는 취업에 대한 유예적 태도를 확인한 바 있다. 이는 Super et al(1966)의 이론에 비추어 볼 때, 막내자녀가 어린 경우 대다수의 기혼여성이 자신의 생애 중심역할을 자녀양육에 두고 있으며, 이 시기 여성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보다는 자녀양육을 우선에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김지경(2002)의 연구에 따르면, 어린자녀에 대한 보육대행자가 있을 경우 자녀의 나이가 어리다하더라도 기혼여성의 취업 이행율이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므로 기혼여성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공공 보육시설의 확대 및 지원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취업에 대한 배우자 반응별로는 ‘반대’ 집단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의사결정의 어려움’, ‘배우자에 대한 고려’, ‘차별’, ‘자녀양육환경’ 요인에서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했다. 이는 기혼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특히 배우자가 자신의 취업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배우자가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줄 경우,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진로준비에 몰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반면에 배우자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여전히 진로결정을 망설이게 됨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혼여성들이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의식 개선 활동과 일·가정양립지원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혼여성의 다중역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둘째, 미취업 기혼여성의 진로포부는 연령, 경력단절기간, 학력, 가계 월 소득, 자녀수, 취업에 대한 배우자 반응에 따라 진로포부의 내용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 집단이 ‘무노력포부’ 요인에서 진로포부에 대한 무노력이 높았으며, 경력단절기간별로는 ‘4년 이하’ 집단이 ‘노력포부’ 요인에서 진로포

부가 높았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집단이 ‘리더포부’ 요인에서 진로포부가 높았으며, 가계 월 소득별로는 ‘300~500만원’ 집단이 ‘진로포부 전체’에서 진로포부가 가장 높았다. 자녀수별로는 자녀수가 ‘없음’ 집단이 ‘진로포부 전체’에서 가장 높았으며, 취업에 대한 배우자 반응별로는 모든 진로포부 하위 요인에서 ‘찬성’ 집단이 진로포부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미취업 기혼여성의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이 어렵다는 사실을 지각하게 되고 이를 통해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진로포부를 낮추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황수정(2006)의 연구에서 고학력 미취업 기혼여성의 경우 시장임금과 여성들이 취업을 통해 희망하는 기대임금과의 차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이 경우 직업적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고학력 기혼여성이지만, 내적인 진로장벽보다 외적인 환경으로 인한 진로장벽의 영향으로 취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진로타협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결국은 노동시장 재진입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어 대졸 이상 기혼여성의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미취업 기혼여성의 진로포부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미취업 기혼여성의 진로상담 과정에서 개인적 특성에 맞춘 충분한 심리적 지지와 격려를 제공하여, 기혼여성들이 자신의 성취와 흥미가 사회적 기대와 충돌한다고 지각하게 될 때, 진로포부를 낮추거나 실제 이상으로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는 취업 상담과정에서 취업을 원하는 미취업 기혼여성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상담 목표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향후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해 노동력 부족 현상은 계속 심각해질 것이고, 이에 따라 여성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미취업 기혼여성들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집단들이 보이는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진로장벽을 예방하고 진로포부를 높일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취업 상담 현장과 가정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미취업 기혼여성의 취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가정양립을 위

한 지원이 바탕이 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것 역시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변화된 사회의 흐름을 맞춰갈 수 있는 여성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는 미취업 기혼여성들의 진로선택 및 결정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에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여성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해 추진해야 하는 정책의 기초자료 제공의 그 의의가 있다.

3. 제언

본 연구 결과를 가지고 후속연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미취업 기혼여성의 취업 및 재취업과 관련된 연구결과들이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에 더욱 많이 활용되어야 한다. 특히 미취업 기혼여성의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여 맞춤형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로장벽에 대처할 수 있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반적인 진로교육프로그램과 차별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진로결정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로상담과 진로교육에서 기혼여성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상담기법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미취업 기혼여성들이 취업을 결정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고민으로 인해 또 다시 경력단절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진로교육프로그램이나 상담이 취업과 관련된 추수지도에 대해서도 진로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맥락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조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미취업 기혼여성의 진로와 관련하여 진로장벽과 진로포부, 진로결정이라는 변인을 통해 미취업 기혼여성의 진로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상이 제주도로 한정되어 있어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제주도 지역의 기혼여성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제주도 지역 기혼여성들의 진로결정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미나(2011). 대학생의 내·외적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포부, 진로결정수준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여성고용과(2010). 여성과 취업(11-1490000-000202-10). 고용노동부.
- 고향자(1993).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고태용(2008).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장벽이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목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국가통계포털. <http://koisis.kr>.
- 김동숙(2011). 미취업기혼여성의 진로장벽과 사회적 지지 인식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2000). 기혼여성의 진로태도 성숙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병숙(2004). 진로장벽에 직면한 직업복귀 여성의 진로타협 유형 분석.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선영(2008). 경력단절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제고를 위한 실태조사. (사)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2008연구보고서, 509
- 김선중(2005).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선희(2006). 역할지향성과 타협상황에 따른 여성의 진로선택 : 타협요인의 선택도 비교.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양희(2008). 지각된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에 대한 종단연구: 학업 우수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경(2008). 대학신입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1191-1210.
- 김은영(2001).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벽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희, 김봉환(2009). 진로장벽 깨뜨리기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진로장벽 인식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10(4), 2225-2239.
- 김지경(2002). 기혼여성의 출산 후 경력단절 및 노동시장 복귀에 관한 분석. 중앙대학교.
- 김진윤(2007).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의 진로장애지각이 직업가치 및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태홍(2001). 여성고용구조의 변화와 향후 정책 방향. 한국여성개발원
- 남순환(2002).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인식과 직업의식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경진(2008). 무용전공생의 진로장벽과 진로포부가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미경(2008). 여대생의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 자아정체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구조모형 분석.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미경, 김영숙, 이현림(2008). 여대생의 사회적지지, 진로장벽, 자아정체감, 진로결정수준의 구조적 분석. **직업교육연구**, 27(2), 1-26.
- 박용두, 이기학(2007). 정서지능, 지각된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 모형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1041-1056.
- 손은령(2000). 여성의 진로선택과 진로장애 지각의 관계. **서원대학교 학생생활연구**, 18, 111-131.
- 손은령(2001a). 여자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손은령(2001b). 진로장벽연구의 동향과 후속 연구 과제. **학생생활연구**, 20, 81-97.
- 손은령, 김계현(2002).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요인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121-139.
- 손은령·손진희(2005). 한국대학생 진로결정 및 준비행동-사회인지적진로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99-417.
- 양난미(2008). 중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진로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 **상담학 연구**, 9(2), 537-550.

- 양현정, 이기학(2007). 남녀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포부간의 관계연구. 2007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596-597.
- 오경생(2008). 제주여성통계.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 4, 187-228
- 유나현, 이기학(2009).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를 매개변인으로. 상담학연구, 10(4), 2241-2255.
- 유미정(2008).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하림(2007). 전문대학 여학생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선미(2001). 농촌지역 여고생의 자아정체감이 진로성숙도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성원(2008). 대학생의 통제소재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육은아(2005). 직업복귀 여성의 비합리적 신념유형 분석.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현희(2008). 장애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진로장벽이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혜경(2007).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의 직업진로 탐색 경험분석 : 직업교육 프로그램 중장년 참여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상희(2007). 진로장벽과 진로성숙의 관계에 대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375-392.
- 이성식(2007). 여대생이 인식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인과모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수분(2009). 미취업 기혼여성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인구보건복지협회(2009), 2009세계인구현황보고서, 한국어판.
- 임선희·전혜영(2004). 여자대학생의 직업세계이행과 진로장벽. 교육사회학연구, 14(1), 101-120.

- 임은경(1998). 여성의 진로장애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한국진로상담학회지, 3(1), 79-97.
- 정미예, 이현림(2007). 대학생의 진로장벽 지각과 진로신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발달의 구조적 분석. 상담학 연구, 8(1), 247-264.
- 정민, 노안영(2008). 대학생의 지각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수준간의 관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낙관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심리치료, 20(2), 391-405.
- 정숙영(2002). 사회적 적응과 의사결정유형 및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영태, 성운애, 강수영(2009). 제주특별자치도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지역적합 유망직종발굴 기초연구.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26
- 정홍원(2002). 여대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제주발전연구원(2005).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안).
- 조현주(2006). 인지 양식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장벽과의 관계 연구. 진로교육연구, 19(1), 95-110.
- 천석준, 이기학(2008). 대학생의 진로결정과정에서의 Holland 흥미 유형별 내적, 맥락적 장벽 요인의 효과모형검증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407-430.
- 최영숙(2004). 진로장벽에 직면한 직업복귀 여성의 진로타협 유형 분석.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수옥(2002). 여대생의 진로포부에 영향 미치는 요인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용용, 윤현희, 이정애(2009). 장벽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장벽이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장벽과 고용, 7(2), 5-28.
- 통계청. <http://kostst.go.kr>.
- 한국금융연구원(2011), 고령화 진전에 따른 정책 과제.
- 황선영(2010).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stin, H. S.(1984). The meaning of work in women's lives: Asociopsychological model of career choice and work behavior.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2(1), 117-126.

Betz, N. E., & Fitzgerald, L. F.(1987). The career psychology of women. *Orlando FL: Academic Press.*

Brown, S. D., & Heath, L.(1984). Coping with critical life event: An integrative cognitive-behavioral model for research and practice. In Brown, S. D., & Lent, R. W.(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pp. 545-578), New York: Wiley

Crites, J. O.(1981). *Career Counseling*, New York: McGraw-hill.

Gottfredson, L. S.(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545-579.

Fassinger. R. E.(1985). A causal model of the career choice in college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7(1), 123-153.

Fitzgerald, L. F., Fassinger. R. E. & Betz, N. E.(1995). Theoretical advances in the study of women's career development. In W. B, Walsh & S. H. Osipow(Eds.) *Handbook of vocational psycholog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pp.67-110). Mahwah, NJ: Erlbaum Associates.

Holland, J. L. & Holland, J. E.(1997). Vocational indecision: More evidence and spec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 404-414.

Lent, R. W., Brown, S. T. & Hackett, G.(1994). Monograph: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79-122.

Lent, R. W., Brown, S. D., Brenner, B., Chopra, S. B., Davis, T., Talleyrand, R., & Suthakaranm, V.(2001). The role of contextual

- supports and barriers in the choice of math/science educational options: A test of social cognitive hypothes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 474-483.
- Lent, R. W., & Hackett, G.(1994). Sociocognitive mechanism of personal agency in career development: Panthoretical prospects. In M. L. Savickas & R. W. Lent(Eds.), *Convergence in career development theories* (pp. 77-101). Palo Alto, CA: CPP Books.
- London, M.(1997). Overcoming career barriers: A model of cognitive and emotional process for realistic appraisal and constructive coping.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4(1), 25-38.
- Luzzo, D. A.(1995). Gender and ethnic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barriers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3(1): 319-322.
- Luzzo, D. A. & Jekins-Smith, A.(1996). Perceived occupational barriers among Mexican-American college students. *TCA-Journal*, 24(1), 1-8.
- O'Brien, K. M., Gray, M.P., Touradi, P. P.(1966). *operationalization of women's career choices: The Career Aspiration Scale*. IN V. S. Solberg & K. M. O'Brien (Chars), Promoting women's career development into the next millennium and beyond. Symposium conducted at the 1996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O'Brien, K. M. & Fassinger, R. E.(1993). A causal model of the career orientation and career choice of adolescent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4): 456-469.
- O'Learly, V. E. (1974). Some attitudinal barriers to occupational aspirations in women. *Psychological Bulletin*, 81, 809-826.
- Osipow, S. H., Carney, C. G., Winter, J., Koschier, M(1980), The Career Decision Scale(3rd rev). Columbus, OH: Marsthon Consulting and

Press.

Osipow, S. H.(1983). *Theories of career development*(3r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Spencer, A. L.(1982). *Seasons*. New York: Paulist Press.

Super, D. E(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 185-190.

Super, D. E(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L. Brooks, & Associate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pp. 197-261). San Francisco: Jossey-Bass.

Swanson, J. L., Daniels, K. K. & Toker, K. M.(1996), Assessing Perceptions of career barriers: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219-244.

Swanson, J. L., & Tokar, D. M.(1991). College students` preceptions of barriers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8, 92-106.

Swanson, J. L., & Woitke, M. B.(1997). Theory into practice in career assessment for women: Assessment and interventions regarding perceived career barrier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5(4), 443-467.

<Abstract>

The effects of barrier to career path and career aspiration of unemployed married women on their career determinations

Song, Ji-yeon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Tea-soo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difference in barrier to career path, career aspiration and career determination by personal characteristic of each unemployed married woma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unemployed married woman's barrier to career path and career aspiration on the career determination; therefore, the following questions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Study Question 1 : How barrier to career path, career aspiration and career determination are different by personal characteristic of each unemployed married woman (age, unemployment duration, educational background, family monthly income, number of children, partner's response to the employment)?

* This thesis submitted to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11.

Study Question 2 : How barrier to the career path and career determination of unemployed married woman are correlated with each other?

Study Question 3 : How career aspiration and career determination of unemployed married woman are correlated with each other?

Study Question 4 : How barrier to the career path and career determination of unemployed married woman effect on the career determination?

To solve out above questions, The sample of unemployed married women were selected from 10 vocational training centers and Jeju woman resources development center located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tests on barrier to the career path, career aspiration and career determination were implemented. A SPSS for Window 12.0 statistics program was used for data analysis to implement the analysis of variance,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is are as followings.

First, the barrier to the career path, career aspiration and career determination by personal characteristics (age, unemployment duration, educational background, family monthly income, number of children, partner's response to the employment) of unemployed married women were statistically and significantly different.

Second, the barrier to career path and career determination of unemployed married woman were negatively correlated; and 7 of lower factors in the barrier to career path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determined level', the lower factors of career determination at significant level.

Third, the career aspiration and career determination of unemployed married woman were positively correlated and 3 of lower factors in the career aspiration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determined level', the lower factor of career determination at significant level.

Forth, the barrier to career path and career aspiration of unemployed married women were statistically and significantly difference in career determination; and

the "difficulty in decision making" of barrier to the career path and "efforts aspiration" of career aspiration had shown to be the greatest influences to all factors of career determination.

Based on above results of this study,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barrier to career paths, career aspiration and career determination by personal characteristic of each unemployed married woman and the barrier to career paths and career aspiration of unemployed married women were deeply related to their career determinations. Therefore, the counseling program considering personal characteristic of each unemployed married woman should be developed to prevent against the barriers to the career and increase their career aspirations; and these programs should be used in employment counseling center and home. Also, the support for consistent between home and work should be based for unemployed married women to find their jobs. To achieve this, creating social culture can be important motive; thus, the employment policy for women that keeps pace with flow of changed society should be implemented at the national level.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unemployed married woman's barriers to their career paths and career aspirations on their career aspiration; and study can provide the data to understand unemployed married women who want to find the job during their employment consultations. And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in the woman's sustainable economic activity.

<부 록>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미취업 기혼여성의 진로장벽과 진로포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결과는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되며, 모든 응답은 무기명 통계처리 되어 학문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개인적인 사항은 절대 비밀이 보장 될 것입니다.

부디 바쁘시더라도 모든 문항을 솔직하게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 5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송지연

※ 설문에 응답하시기에 앞서 다음의 질문에 체크(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령 : 30대 이하 () 40대 () 50대 이상()
2. 경력단절기간 : 1년 이상 () 2년 이상 () 3년 이상 ()
4년 이상 () 5년 이상 ()
3. 학력 : 초졸() 중졸() 고졸() 대졸 이상 ()
4. 가계 월 소득 : 150만원 미만() 150-300만원()
300-500만원() 500만원 이상()
5. 자녀 수 : 1명() 2명() 3명 이상() 없음()
6. 취업에 대한 배우자 반응 : 찬성() 반대() 보통()

■ 다음의 문항은 진로포부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생각하고 느끼는 바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각 질문을 자세히 읽고 자신과 가장 일치하는 부분에 √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진로분야에서 리더가 되고 싶다.					
2	나의 진로에서 자리가 잡히면 나는 다른 직원들을 관리하고 싶다.					
3	나는 내가 흥미 있어 하는 분야의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것이다.					
4	내가 일하고 있는 조직 혹은 사업 분야에서 승진을 위해 에너지를 쏟을 계획은 없다.					
5	내 진로에서 자리가 잡히면 다른 사람들을 훈련하고 싶다.					
6	내가 일하고 있는 조직이나 사업을 통해 승진하고 싶다.					
7	특정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본적 교육을 마친 후에는 계속하여 교육받을 필요를 못 느낀다.					
8	나의 직업분야에서 전문가로 발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9	내가 관심 있는 직업분야에서, 퇴사 후에도 훈련을 계속 받고 싶다고 생각한다.					
10	내 직업에서 지도자의 위치를 얻는 것이 나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					

■ 다음의 문항은 귀하께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진로장벽을 묻는 것입니다. 아래의 각 질문에 대하여 √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직장생활을 잘 해나갈 자신이 없다.					
2	가정과 직장 일을 조화롭게 하기가 힘들다.					
3	주부가 쉽게 취업을 할 자리가 없다.					
4	직업을 통해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5	직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적인(예: 컴퓨터 활용)능력이 부족하다.					
6	결혼, 출산,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는 것이 어렵다.					
7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이라면 고용에서 차별을 받을 것이다.					
8	내 인생의 목표가 불확실하다.					
9	내가 취업하고자하는 분야의 직원채용이 많지 않다.					
10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할 자신이 없다.					
11	나는 원하는 직업의 정보를 어떻게 얻는지 잘 모른다.					
12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의 직장생활에 영향을 줄 것이다.					
13	어린 자녀를 맡겨 둘 만한 시설이나 기관을 구하기 힘들다.					
14	어렵게 구한 직장을 자녀양육 때문에 그만둘 가능성이 많다.					
15	직장생활을 잘 해나갈 만한 끈기가 없다.					
16	내가 취업한 일자리가 남편의 지위에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17	내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잘 할 자신이 없다.					
18	만약 남편이 전근하게 되면, 나도 따라가야 하므로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을 것이다.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9	연령 때문에 취업이나 직무배치에 있어 차별을 받을 것이다.					
20	그 직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이 없다.					
21	남성위주의 조직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22	나의 모든 역할들(부모, 배우자, 직업인)을 잘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큰 부담이다.					
23	기혼자이기 때문에 고용에서 차별을 받을 것이다.					
24	여성이기 때문에 취업, 승진, 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25	내가 갖고 싶은 직업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진로를 결정하기가 힘들다.					
26	남편은 내가 취업하기 보다는 자녀양육에 전념하기를 원한다.					
27	직장상사와 동료들이 여성의 능력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					
28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29	직무 분담에 있어서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을 것이다.					
30	어린자녀를 두고 직장생활을 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					
31	인근에 취업할 업체가 없다.					
32	청년실업자의 증가로 기혼여성이 취업하기가 힘들다.					

■ 다음의 문항은 진로결정수준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생각하고 느끼는 바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각 질문을 자세히 읽고 자신과 가장 일치하는 부분에 V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장래직업을 결정했으며 그 결정에 대해 편안함을 가진다.					
2	나는 현재의 내 위치에 편안함을 느낀다.					
3	나에게 재능이 있고 기회도 주어진다면 나는 ___가(이) 될 수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고 나는 다른 어떤 대안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					
4	나는 똑같이 호감이 가는 직업들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다.					
5	나는 결국 직업을 가져야 하지만 내가 아는 어떤 직업에도 호감을 느끼지 못한다.					
6	나는 ___가(이) 되고 싶지만 가족이나 친지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당장 진로결정이 어렵다. 내 자신과 그들의 생각이 일치되는 직업을 발견하고 있다.					
7	본 경험이 별로 없고 또 당장 진로결정을 할 정도의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혼란스럽다.					
8	진로선택에 관한 모든 것이 너무 모호하고 불확실에서 당분간 결정하는 것을 보류하고 있다.					
9	나는 내가 어떤 진로를 원하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최근에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다른 진로를 모색하려고 한다.					
10	나의 진로선택에 확신을 갖고 싶지만 내가 아는 어떤 경로도 나에게 이상적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진로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버리고 싶다. 내가 어떤 진로를 택해야 할 지 알려줄 수 있는 검사라도 받고 싶다.					
12	나의 전공분야가 내가 만족할 만한 진로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13	나는 나의 적성과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진로결정을 당장 할 수 없다.					
14	나는 나의 관심분야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른다. 흥미를 끄는 분야가 몇 가지 있지만 나의 진로 가능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15	나는 많은 분야에 관심이 있으며,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지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하나의 직업을 찾기가 힘들다.					
16	나는 진로결정을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지 확실하지가 않다. 내가 선택한 ___가(이) 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17	진로결정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직업들에 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18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알고 있지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